

# 여성 교육 교재로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1921)의 의미\*

박정숙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는 글
2. 근대의 '청년 담론'과 '청년 독본'
  - 1) 이십세기 '청년' 개념의 형성
  - 2) 1920년대 초 '청년 담론'과 청년 독본류의 등장
3. '여자 담론'과 여성용 계몽교재
  - 1) 근대의 여자계, 여학생, 청년여자/신여자
  - 2) 근대 초기 남성지식인들의 여성교육론과 여성 담론
  - 3) 여성용 계몽교재
4.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여성 교육 교재로서의 의미
  - 1) 창가집 구성에 대한 이해
  - 2)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창가집의 의미
5. 나가는 글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 S1A5B5A16055977)

## 개 요

본 연구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1921)를 ‘음악’ 교육적 시사보다는 ‘여성 교육’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근대 시기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문명의 소리’ 또는 ‘개화의 소리’로 인식되는 창가는 한국 근대를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저장소로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표출하고 새 시대의 의식 및 규범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음악의 실용적 가치가 우선시된 장르라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는 식민지 조선에 교육열이 높아지고, 사회 지도자로서 청년의 책임을 일깨우고자 했던 청년 담론이 성행하며,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하는 여성 담론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여성용 교육 자료의 출판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청년여자/신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 교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라 할 수 있다. ‘노래’라는 형태를 통해 ‘여자’를 근대사회의 일원으로 호명하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전통과 근대를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된 근대적 여성상을 주입하고(남녀동등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가족 관계 내의 ‘현모양처’라는 제한적 여성상만을 이상화한다), 청년여자/신여자가 경계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열녀효부’와 같은 유교 전통의 가치를 재생산하였다. 이는 해당 창가집뿐만 아니라 근대 시기 여성용 교육 교재를 통해 드러나는, 지적 권위를 가진 남성 지식인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조망하고 젠더 질서를 확립하는 방식이다.

주제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1921), 근대 교육 교재, 여자 담론, 현모양처, 근대성, 젠더 질서

## 1. 들어가는 글

근대 시기 ‘창가’는 문명의 소리, 개화의 소리, 혹은 근대 국민의 소리로 인식되던 신식 음악으로, 조선 고유의 근대를 형성하고 계몽을 통해 문명사회를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창가는 일제의 일선융화(日鮮融和),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 신민화 정책의 도구로 동원되기도 하고, 그 반대 목소리로 독립을 고취하기 위해 애국 계몽, 항일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창가는 서양음악 어법의 틀을 채택한 것으로 재래 음악이 아닌 새 시대의 문명화된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근대계몽기 조선의 창가는 음악적 조건을 넘어 자주독립이나 국권 회복을 부르짖으며 국민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에 근대식 학교가 세워지면서 학교 창가 혹은 교과서 창가가 시작되었고, 1906년에 <보통교육령시행규칙> 공포로 창가가 학교의 교과목으로 정해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 수많은 학교 창가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한편 식민 시기 동안 반일 사상이나 민족독립, 애국을 고취하는 목적의 창가는 ‘불온창가’로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 문화정치로의 전환과 사립학교용 창가 교과서의 다량 제작으로 창가는 애국, 독립, 투쟁의 성격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창가에서 비판적 의식이나 저항적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동안에 창가가 보급되거나 혹은 탄압받게 된 주된 이유는 창가의 가사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가사는 창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창가는 음악성 함양보다는 사회질서 교육의 목적, 선동 혹은 선전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대개 선율의 형태나 리듬 구성이 단조롭고 음악 구조가 단순하다. 그래서 창가는 그 음악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거나 창가를 두고 음악 양식의 다양성, 정제된 예술성, 심미적 가치 등을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보다는 가사를 통해

악곡이 담아내는 시대정신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창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창가는 근대 시기 음악 문화를 대표하며 끊임없이 시대와 사회와 교섭하는 역동적인 음악 장르로, 역사의 흐름과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시대의 상황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근대를 사유하고 통찰하는 저장소로 창가를 이해하고, 창가를 통해 시대정신이 사회생활사에 기입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힘에 더 큰 가치가 주어진 장르이자 공동의 질서를 노래하도록 목표한 창가의 실용적 가치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을 관통하여 창가에서 드러나는 시대 의식과 사회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음악에 대응되는 새로운 소리인 창가를 통해 전근대를 탈각하고 근대를 선취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근대화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시기 지적 체계와 사회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젠더 질서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는 식민지 조선에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사회 지도자로서 청년의 책임을 일깨우고자 했던 청년 담론이 성행하고, 여성이 사회적 존재로 인식된 이후 다양하게 분화하는 모습들이 공론화되면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성 담론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문이나 잡지가 주된 담론장 역할을 했다면 교육용 교재는 보다 명확한 교육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창가를 통해 여성을 근대사회의 일원으로 호명하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二十世紀青年女子唱歌, 1921)는 청년여자/신여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교육 교재로서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창가집을 구성하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 시기 청년 담론과 여자 담론에 대해 살펴보고, 창가집을 통해 발화되는 지적 권위를 가진 남성 지식인의 목소리 즉 그의 기준으로 여성의 사회적 가치를 조망하고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목소리를 분석함으로써,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가 갖는 근대 시기 여성 교육자료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를 향한 열망 아래 청년과 여성과 그리고 음악이 연동하는 방식을 살펴보

면서, 근대의 가치교육과 음악교육이 중첩된 곳에서 드러나는 여성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어떤 사회의식과 사회 활동을 요구하는가?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를 개척하여 나아갈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는가? 책임과 의무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지시키는가? 자율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게 하는가? 여성의 자아실현 성취에 얼마나 뜻을 두고 있는가? 신지식을 습득한 여성들에게 선각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가? 기존의 폐쇄된 규범을 탈각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용기와 적극적인 태도를 구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 2. 근대의 ‘청년 담론’과 ‘청년 독본’

### 1) 이십세기 ‘청년’ 개념의 형성

‘청년’(靑年)이 하나의 세대 혹은 사회적 계층을 칭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고, 그전까지 ‘연소’(年少)한 자, ‘젊은이’ 등을 아우르던 일반적인 호칭은 ‘소년’(少年)이었다. 오늘날에는 소년과 청년의 연령대를 구분하지만, ‘젊은’, ‘어린’의 의미를 갖는 전통 시대의 ‘소년’은 연령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았고,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동자’(童子)와, 혹은 ‘장년’(壯年)과 구분되는 세대로서, 대개 경험이 부족하고 배움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층을 ‘소년’이라 광범위하게 지칭했다.<sup>1)</sup> 그러나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조선 최초의 근대 잡지이자 계몽잡지인 『소년』을 창간하고, 그 창간호(1908)에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라고<sup>2)</sup> 씀

1) 박철하, 『청년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89-190.,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근대로의 전환』 (서울: 지식의 날개, 2018), 144-145.

으로써, 소년은 더이상 미성숙한 미성년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새로운 문명과 근대의 주역이라는 의미로 조선의 젊은이들을 ‘청년’으로 처음 호명한 것은 일본의 영향으로, 서구의 젊은 세대를 뜻하는 ‘young man’이나 ‘youth’를 일본어 ‘세이넨’(せいねん, 青年)으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했다. 1896년 도쿄 유학 중이던 관비유학생들의 모임인 ‘대조선유학생친목회’가 발간한 『친목회회보』에 ‘청년’이란 말을 사용한 글이 게재된 바 있고, 또 조선 내에서는 1897년에 정동교회가 청년회를 조직하면서 처음 근대적 의미의 청년이라는 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용어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과 ‘청년’은 함께 섞여 사용되었고, 1905년 이후 애국계몽운동과 학교 설립, 신지식보급 같은 교육 구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부터 신문이나 잡지, 학회지 등에 ‘청년’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 빠르게 확산되었다.<sup>3)</sup>

한편 유럽에서 ‘청년’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형성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과 함께 등장했다. 성년 노동자에 비해 숙련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 견습공 등으로 여겨져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착취와 차별을 받아왔는데, 1848년 이탈리아의 여러 도제직공(徒弟織工) 동맹에 속해 있던 청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대항하고 노동청년의 이익 옹호 투쟁을 위해 노동청년 조직을 설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청년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청년운동은 성인이 되지 못한 미숙하고 과도기적인 세대로만 여겨졌던 ‘청년’의 존재를,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주요 계층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4)</sup>

2) “소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962>에서 재인용, 검색일: 2024. 9. 1.

3) 박철하, 『청년운동』, 5-7.,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45-146.

4) 이탈리아의 노동청년 조직에 앞서 19세기 초 독일에서, 당시 39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국가 상황을 타파하고 게르만 민족의 통일을 주장했던 학생결사가 예나(Jenna) 대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바 있는데, 이 같은 ‘학생운동’의 출현도 청년운동의 한 지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4), 49-50.

서구 유럽의 청년계층이 노동계급 안에 존재하는 노동청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청년운동 또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던 것에 비하여, 조선의 청년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민족해방 및 자주독립에 대한 염원, 그리고 봉건적 구습에서 벗어나 새 시대로 나아가려는 변화에서부터 출발했다. 즉 조선에서의 청년운동은 근대 지식인들의 계몽운동과 근대 교육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학생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권 회복을 위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 봉건 잔재를 청산하고자 했던 계몽지식인들은 근대 서구학문을 수용하면서 무엇보다 진보적인 청년 양성을 중시했고, 이를 위한 근대식 학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갑신정변(1894) 이후 전통 교육을 극복하고 서구의 근대 학문을 가르치고자 했던 신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는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는데,<sup>5)</sup> 민족 교육을 강조하면서 근대 교육을 지향했던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전개를 위한 기반이 되었고,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계층’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은 을사조약 체결(1905) 이후 다양한 학생단체들을 결성하고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항일 애국활동을 전개해 나갔는데, 함경남북도 학생들로 구성된 서북학생친목회(1906), 보성전문친목회

5) 애국 계몽기에 조선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사립학교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교육활동을 신교육운동이라 통칭한다. 한편 조선에 세워진 가장 초기의 근대식 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1885), 경신학교(1885), 이화학당(1886), 정신여학당(1887) 등이 있다. 1895년 4월에 ‘한성사범학교 관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법규가 제정된 이후 교육령이 발표되고 소학교, 사범학교와 같은 관제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일본 학제에 기반한 친일 내각에 의한 것으로, ‘교육’이 식민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애국 계몽지식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사업 참여로 인해 당시 서울과 지방에는 수십 개의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는데, 한성의숙(1898, 한성), 광흥학교(1898, 한성), 순성여학교(1898, 한성), 낙연의숙(1901, 한성), 보성학교(1906, 한성), 오산학교(1907, 평북 정주) 등은 민간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학교이고,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로는 광성학교(1894, 평양), 승덕학교(1894, 평양), 일신학교(1895, 동래), 승실학교(1897, 평양), 배화학교(1898, 한성), 승의학교(1903, 평양), 호수돈학교(1904, 개성), 진성여학교(1904, 원산) 등이 있다.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58-61., 최기영, 『애국계몽운동Ⅱ-문화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5-31 참조.

(1906), 호남학생친목회(1908), 영남학생친목회, 개성학생친목회(1909), 휘문 의숙의 교우회(1910), 학생청년회(1910) 등이 대표적이다.<sup>6)</sup>

1910년 8월 강제적인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면서 식민 통치기구로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관장했고 민중을 착취하고 경제침탈을 일삼았다. 또한 조선의 학생청년들을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1911년 조선교육령을 시행한 동시에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학생의 활동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무단통치 하에 조선의 학생청년과 지식인들은 민족독립을 위한 해방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주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조직들을 결성했고, 의병과 함께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것에서부터, 독립군 지원, 군사훈련 교육, 해외 독립운동가와의 연계, 조선 민중의 애국정신을 고취 시키기 위한 문필 활동 등 적극적인 반일 해방 투쟁의 성격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난 전 민족적 성격의 반일 봉기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만세 시위를 필두로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고, 4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민중의 거국적 독립운동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학생청년들은 민중을 시위로 유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각자 고향에 내려가 시위를 조직하고 선동하여 3·1운동을 전국 각지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견인차가 되었다.<sup>7)</sup> 3·1운동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의 진취적인 모습을 본격적으로 가시화시켜주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5월 말에 종식되었으나 이후 조선 민중의 민족투쟁 의식은 보다 고양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민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3·1운동 이후 일제의 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되고 그간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탄압이 다소 완화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개벽』 등의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각 지역에 각종 사회단체들과 함께 청년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6)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63.

7)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65-74.

전까지 장년층이 주도해 왔던 민족운동이 다소 비조직적이고 일시적이었음을 인식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청년들은 전국 각 지역에 다수의 청년단체를 규합하여 결성하고, 강령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1920년대 초에 청년단체가 집중적으로 결성되었는데, 조선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1920년에 251개, 1921년에는 446개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었다.<sup>8)</sup> 이들 대부분이 민족주의 성향의 단체이거나 혹은 기독교, 불교, 천도교 같은 종교적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었는데, 청년회, 청년단, 청년협회, 청년구락부, 청년야학회, 청년수양회 등의 이름으로 조직된 청년단체들은 강습회,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음악회, 운동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해나갔고, 이 시기 전국 규모의 대표적인 청년단체로는 ‘조선청년연합기성회(1920)’, ‘조선청년회연합회’(1920), ‘서울청년회’(1921) 등이 있다.<sup>9)</sup>

## 2) 1920년대 초 ‘청년 담론’과 청년 독본류의 등장

1910년대 민족해방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학생과 지식인들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민족의 근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sup>10)</sup> 1920년대에 이르러 주체 의식이 강화된 청년들은 조선사회의 변화

8) 1920년대에 청년의 시대가 꽃피었다고 본 국학자 이기훈은 1920-1922년 사이에 청년회가 1300개 이상 조직되었고, 1922년에는 그 수가 2000개를 넘었다고 했다.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51.

9) ‘조선청년연합기성회’가 조선 최초의 전국적 청년운동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발기된 준비모임이라면, ‘조선청년회연합회’는 ‘기성회’를 토대로 서울에서 조직된 가장 대표적인 청년운동단체 연합기관으로 청년단체의 통합을 위해 결성되었다. 한편 ‘연합회’ 내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공존했는데, 대표적인 사회주의 단체였던 ‘서울청년회’는 정치적 노선의 갈등으로 1922년 ‘연합회’를 탈퇴하고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다. 해당 단체들의 조직과 분파, 그리고 그 밖의 1920년대 청년운동 및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76-98 참조.

10) 일본 유학을 통해 근대 문화를 체험한 이광수(1892~1950)는 ‘고주(孤舟)라는 필명으로 1910년 『소년』에 “금일 우리 한국청년의 경우”라는 글을 기재하면서, “우리들 청년은 피교

를 이끄는 주역이자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가치와 목표의 상징으로 그 존재가 더욱 부각 되었다. 더욱이 1920년 4월에 『동아일보』가, 6월에 『개벽』이 창간 되고 당시 언론매체들이 청년 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개조와 발전과 활로가 청년 제국의 손안에 있다.”라는<sup>11)</sup> 식의 청년에 대한 논의가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에 넘쳐났고, 조선 사회에는 그야말로 ‘청년 담론’이 새롭게 형성, 활성화되었다.

‘청년 담론’은 특히 각종 청년단체의 출현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화운동’과도 관계가 깊다.<sup>12)</sup>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영역에서 세계 개조를 통해 인류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문화주의’에 입각한 ‘문화운동’은, 따라서 저항적, 정치적 투쟁의 성격보다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계몽을 통해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개조를 통해 조선의 근대화, 문명화를 달성하고자 했고,<sup>13)</sup> 진취적인 기백과 의지를 가진 새로운 세대인 청년을 계몽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인식했다.<sup>14)</sup> 기존의 조직이나 구조, 사물과 의식을 고쳐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개조’(改造)는 애국 계몽기부터 등장하여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논

---

육자 되는 동시에 교육자 되어야 할지며 학생 되는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지라.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들은 학교나 선각자에게서 배우는 동시에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것이요.”라고 쓴 바 있는데, 스스로가 청년으로서 계몽의 대상이자 주체가 될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50에서 재인용.

- 11) 박창욱, “청년회 제군에게,” 『동아일보』, 1920. 7. 31.,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51에서 재인용.
- 12) 앞서 언급했던 ‘조선청년회연합회’에 속한 전국 대부분의 청년단체들은 지, 덕, 체의 발달과 교육의 보급, 산업 발달 등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삼았고, 단체 간 회합뿐만 아니라 강연, 야학 등을 통해 대중들의 계몽을 위한 각종 사업도 벌여나갔는데, 이는 ‘문화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80-81.
- 13)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52.
- 14) 한편 1910년대 통제와 감압의 식민 상황에서 청년 담론은 근대계몽기의 ‘소년’ 개념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1914년에 창간되었던 최남선의 『청춘』(靑春)을 예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젊은이들을 향해 있던 ‘소년 담론’은 청년의 저항적 의식이나 주체적 의지를 표현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청춘’을 예찬하는 것에 그치거나, ‘새 아이’, ‘소년의 비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상실감을 드러내거나 문명의 열등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컸다. 강미정, “청년 계몽과 수양론,”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출판, 2019), 45-46.

의된 개념으로, 민중의 의식을 깨우치게 하자는 문화 계몽의식으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사유 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그런데 조선은 정치나 사상을 자유롭게 논할 수 없는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형성된 지적 담론으로서 주로 논의된 개조의 방법은 개인의 ‘자수(自修)’, ‘자양(自養)’을 바탕으로 하는 ‘수양(修養)과 사회도덕의 함양이었다. 즉 이 시기 개조의 대상과 내용은 국가, 사회제도의 개혁보다 개인의 의식 개조를 향하는 ‘내적 개조론’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6)</sup> 청년이 근대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선의 문명화,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조’와 ‘수양’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개조론’과 ‘수양론’은 당시 계몽 문화운동의 주된 이데올로기이자 청년 담론의 근간이 되었다.

청년에 대한 논의가 지면(紙面) 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애국 계몽기와 강제 병합 이후의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친목 도모나 학술 교류뿐 아니라 신문화 및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대한유학생회), 『대한흥학보』(1909~1910, 대한흥학회), 『학지광』(1914~1930,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등의 유학생 단체 기관지에는 조선의 비관적 현실을 인식하고 부패한 전통사회를 타파하여 새 시대를 이끌어갈 조선 청년의 임무에 대해 논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다. 일례로 일본의 근대사회에 경도되어 있었던 이광수(李光洙, 1892~1950)가 ‘이보경’이라는 필명으로 『대한흥학보』에 쓴 “일본에 재(在)한 아한유학생(我韓留學生)을 논함”(1910)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유학생을 “학문을 널리 하며 지식을 넓게 하여 도탄해 신음하는 반도 동포를 자유의 복락에 인도하며 자기의 방명(芳名)을 만대의 역사에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자”, “무엇이든지 일개 전문(專門)을 수료하여 자기의 의식을 풍요히 하려는 자”라고<sup>17)</sup> 하면서, 유학을 통해

15)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미,” 『시문논집』 68 (2016), 430.

16)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미,” 431-434.

17) 이보경, “일본에 재(在)한 아한유학생(我韓留學生)을 논함,” 『대한흥학보』 12 (1910), 8-12.  
강미정, “일제강점기 문명 담론의 변용과 1920년대 청년독본류의 개조론,” 『한국어문교육』

선진 학문을 익힌 지식인만이 구습의 조선을 구해낼 수 있다는 논조를 펼쳤다. 조선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재가 될 청년의 상(像)은 이후 ‘개조론’에서 보다 명확해졌다.

기본적으로 ‘개조론’은 조선이 쇠퇴하여 식민지가 된 이유를 문명화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와 민족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개조’를 통해서만이 식민을 극복하고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 여겼다.<sup>18)</sup> 1920년대 초 청년독본의 의의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개조론을 살펴본 허재영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를 풍미했던 개조론은 한 가지 주장으로 합치되기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는데, 그 대상과 방법에 따라 ‘사회제도의 개조’를 우선하는 경우, ‘종교 및 개인의 도덕성 및 윤리의식의 개조’를 강조하는 경우, 그리고 ‘협동이나 단결을 목표로 개인 수양’을 강조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사상이 통제되고 제도적 개혁이나 사회, 정치, 민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명화, 근대화, 계몽의 일주체 되는 청년이 민족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우선 택한 개조의 방도는 대개 개인의 ‘도덕적 수양’으로 수렴되었다. ‘수양’의 목적은 ‘자기 개조’이며, 그 본질은 도덕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기 인식’에 있다는 것이 청년 담론의 핵심이다.<sup>19)</sup>

당시 청년 담론의 주된 장(場)은 신문, 잡지 등이었으나, 계몽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발행된 계몽교재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독본류’는 그 기본 담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을 읽음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독본’(讀本)은 본래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 형태로 개발된 교육자료이지만,<sup>20)</sup> 보다 넓은 범위에

54 (2023) 113에서 재인용.

18) 강미정, “일제강점기 문명 담론의 변용과 1920년대 청년독본류의 개조론,” 116.

19)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433-434, 442. 한편 강미정은 청년 담론의 기본 구조를 ‘조선의 부정적 현실 인식 → (원인 규명) → 개조의 필요 → 청년의 역할(입지, 수양)’로 정리하기도 했다. 강미정, “일제강점기 문명 담론의 변용과 1920년대 청년독본류의 개조론,” 122.

서 민중 계몽을 위한 중요한 읽기 교재의 역할을 담당했다.<sup>21)</sup> 더욱이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던 가운데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고, 최초의 대중 독본이라 할 수 있는 최남선의 『시문독본』 초판이 1916년에 편찬된 이래 ‘어린이 독본’, ‘농민 독본’, ‘노농 독본’, ‘청년 독본’ 등 계몽서 성격의 다양한 독본들이 1920년대에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sup>22)</sup> 이 가운데 1920년대 초 청년 담론의 논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청년 계몽서로는 안확(安廓)의 『자각론』, 『개조론』(1920, 1921, 회동서관, 조선청년회연합회, 한일서점), 강하형(姜夏馨)의 『이십세기 청년독본』(1922, 태화서관), 이광수의 『조선의 현재와 장래』(1923, 흥문당서점), 박준표(朴埈杓)의 『현대청년수양독본』(1923, 영창서관) 등이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 개조를 목표로 하면서도 개인의 자각, 도덕적 수양, 자기 의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개조의 주체이자 장차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청년들이 읽어야 하는 지침서 역할을 했다.<sup>23)</sup>

- 
- 20) ‘독본’은 당대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적 정체성을 다룬 내용을 ‘국어’로 반영했다는 데서 대개 국어과 교재로 분류된다. 그러나 당시 교과와 통합적 특성으로 인해 ‘독본’ 내용의 많은 부분이 윤리와 교재인 ‘수신’(修身)과 중복되기도 한다.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편,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 (서울: 제이앤씨, 2022), 5.
- 21) 일제강점기의 계몽교재는 ‘누가’(주체) ‘누구를’(대상) 위해 발행하였는지에 따라 그 유형 및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계몽교재들은 대개 일본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업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각종 강습회용 교재, 자력갱생운동 교재 등 식민지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청년 수양 교재 등이 다수였다. 한편 조선인 계몽지식인이나 계몽단체 등의 민간에서 조선 민중을 대상으로 편찬한 교재들은 민중의 한글 문자해독력을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문체나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로 생활에 필요한 일반 상식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특정 목적을 고려한 계몽교재들, 즉 강연회나 강습회, 야학 등에 필요한 교재가 제작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독본류’가 다수 출판되었다. 허재영,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독본 자료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출판, 2019), 23.
- 22)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425.
- 23) 각 독본의 개략적 내용에 대해서는 허재영의 논문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와 강미정의 논문 “일제강점기 문명 담론의 변용과 1920년대 청년독본류의 개조론” 참조.

이 중에서 “일명 수양편”이라는 부제가 붙은 강하형의 『이십세기 청년독본』은 대표적인 청년 수양서라 할 수 있는데, 전체 20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청년의 이상과 목표’(제1장 청년편, 제2장 청년의 전진편, 제3장 입지편), ‘처세와 생활’(제4장 처세편, 제5장 지기편, 제6장 생활편, 제7장 정육론), ‘청년의 희망과 활동’(제8장 희망편, 제9장 활동편, 제10장 노력편, 제11장 번민편, 제12장 실천편), ‘책임과 자각’(제13장 책임편, 제14장 자각편), ‘수양의 방법’(제15장 수양편, 제16장 자제편), ‘수양의 결과’(제17장 성공편, 제18장 행복편), ‘청년의 도덕과 행로’(제19장 도덕편, 제20장 행로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이 같은 독본류는 개인 수양을 통해 청년의 자질을 형성한 후 사회에 나가 처세에 힘쓰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수양의 주체이자 대상은 개인 자아요, 수양의 본질은 자아 인식에 있으며, 자아 인식은 도덕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독본류의 주된 논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한편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국가가 처한 식민의 상황에 대한 논의나 항일 투쟁 의지 혹은 좌우 진영 간 대립되는 이념적 견해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계몽서로서 지적 담론의 일면을 보여주는 이러한 독본류는 국가와 민족, 독립, 저항, 이념 등의 정치적 대의명분을 앞세우기보다는 수양과 자각을 통해 자기를 알아갈 것과 미래를 향해 스스로 나아갈 것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는 청년에게 사회 발전의 책임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청년을 국

24)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각광 받은 청년이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청년들이 수양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었는지 되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일제의 수탈과 빈곤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능력을 갖춘 청년은 유식계급이나 부호 자제 정도의 극소수였고, 실제로 당시 청년들의 보통학교 취학률이나 중등학교로의 진학률은 매우 낮았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노동자나 농민으로 생산현장에서 일해야 했으며, 1920년대에는 70-80퍼센트에 이르는 청년들이 정규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빈농의 청년으로 머물러야 했다. 이기훈, “청년, 젊은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152-155.

가나 민족이라는 한 집단의 일원으로 공동체적 목적 달성을 위해 거대 담론 속에 포섭하기보다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모되는 과정 가운데,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의식을 키워나가는 한 ‘개인’으로 청년을 불러내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조선 사회가 근대적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때의 사회는 개인이 모여 이룬 단위로서 일상 영역으로 구성된 사회임을<sup>25)</sup>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여자 담론’과 여성용 계몽교재

#### 1) 근대의 여자계, 여학생, 청년여자/신여자

그렇다면 1920년대 청년여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을까? 청년여자를 향해 있는 사회적 관습과 사상은 무엇이며 사상은 어떤 방식을 통해 구성되었을까? 본격적으로 남성 지식인들이 논한 여성에 관한 담론을 알아보기에 앞서, 전통사회의 여성에서 근대사회의 여성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난 여성상, 즉 1920년대 초까지 근대적 여성 개념 형성의 일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여자계 희소식’: 여자교육회 총재 이옥경씨가 내부에 청원하되 본회에 서 여자잡지를 발간하기를 청원하니 특별히 인허하라 하얏다더라.<sup>26)</sup>

이 짤막한 인용문은 『황성신문』 1907년 7월 3일자에 실린 알림 기사이다. 여성 계몽교육을 목적으로 1906년에 설립된 ‘여자교육회’가 당시 총재 이옥경의 주선으로 기관지 발행을 청원하였는데,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상황을 ‘희

25)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편,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 576-579.

26) “女子界喜消息: 女子教育會總裁 李鈺卿氏가 内部에 請願하되 本會에서 女子雜誌를 發刊하되 請願하니 特爲認許하라 하얏다더라.” 기사 본문의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465>), 검색일: 2024. 9. 1

소식'으로 전하였다. 해당 기관지는 1908년에 최초의 여성단체 간행물로 알려진 『여자지남』(女子指南)이며, 당시 여성전용 잡지의 발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기사 제목에서는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표기한 '여자계'(女子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 이전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로, 근대 초기 신문과 같은 매체들이 조선 사회와 조선인을 다양한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면서 '교육계', '학문계', '농업계', '노동계', '소년계' 등과 같이 사회의 한 구성체로 여성을 불러내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었다.<sup>27)</sup> '여자계'는 1917년에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가 발행한 여성 교양지의 이름으로 알려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애국계몽기의 여성이 사회의 한 계층으로 가시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기도 하다.

'여성'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1890년대 후반에 창간된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신문에 게재되었던 논설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식민지화에 대항하고 애국계몽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녀동등권, 여성해방, 여성 교육 등의 문제를 신문 지상에서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담론이 적극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자', '부녀', '아녀자', '부인', '계집', '여사', '여인' 등을 총칭하는 단어인 '여성'은 근대계몽기 동안에는 아직 신문, 잡지 같은 공식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개 1920년대 '신여성 담론'이 시작되면서부터 매체들에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 이전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을 지칭할 때 주로 '아낙네', '처(妻)', '며느리', '모'(母)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성을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 내의 역할 관계를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언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이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은 '부녀자'(婦女子), 또는 '여자'(女子) 등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어의 변화 추이는 여성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

27)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용 교과서, 근대적 '여성'의 기원과 형성," 『한국문예비평연구』 47 (2015), 197.

식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조짐을 나타낸다.<sup>28)</sup> 또한 사적 영역 내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이 점차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적 성격의 ‘여자’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음, 즉 여성이 사회적으로 재발견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자’ 혹은 ‘여성’은 근대의 신조어라 일컬어진다.<sup>29)</sup> 이 같은 근대의 ‘여성’이 등장하게 된 공식적 계기로 무엇보다 근대교육,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학생’과 ‘청년여자/신여자’라는 사회 구성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성 교육의 방안으로 가장 먼저 구체화 된 것은 여학교의 설립이었다. 외국 선교사들의 종교적, 교육적 열의 하에 의해 이화학당(1886)과 정신여학당(1887), 인천 영화여학교(1892)이 등이 먼저 세워지고, 신교육운동의 영향으로 서울과 전국 각지에 순성여학교(1898), 배화여학교(1898), 숭의여학교(1903), 진성여학교(1904), 양규의숙(1906), 명신여학교(1906), 진명여학교(1906), 평양 애국여학교(1906), 개성 정화여학교(1908) 등의 사립 여학교가 꾸준히 설립되면서,<sup>30)</sup> ‘여학생’이라는 존재가 조선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학문이 불필요한 ‘여아’ 혹은 ‘계집’ 정도로만 여겨지던 어린 여성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여학생’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고, 오래된 유교적 제약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집 밖 공간에서 사회를 경험하게 된 초기 여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28)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용 교과서, 근대적 ‘여성’의 기원과 형성,” 192-193.

29) 김정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서울: 소명출판, 2019), 82.

30) 그러나 교육을 통한 계몽과 구국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다수의 사립 여학교들은 1908년 8월 민족교육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령’이 통감부에 의해 공포된 이후 학교 설립 인가 및 유지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받거나 폐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여성 정책의 표본과 방향을 제시할 요량으로 ‘고등여학교령’(1908년 4월)에 의해 조선 최초의 관립 여자교육기관으로 ‘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6), 14.

일기 좋고 너른뜰에 여자학생 운동이라 연약상태 다버리고 활발하게 나가보세  
 압설여자 누구있나 일등상은 내것일세 나가보세 나가보세 용맹하게 나가보세  
 여자들아 여자들아 충심열심 잊지마라 지터라도 낙심마라 후일다시 승부결단  
 종일토록 행락타가 개기불러 도라올제 군국만세 학교만세 만세삼호 하여보세<sup>32)</sup>

위의 인용문은 1907년 5월에 서울, 경기 지역의 7개 여학교 147명의 여학생들이 참가한 여학교 연합운동회의 마지막 순서에 여학생들이 모두 함께 불렀던 '운동가' 가사 일부이다. 활발하게 공부하고 운동하여 근대적인 학문을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을 노래한 여학생들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표상함으로써 스스로 계몽의 주체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근대 지식의 습득과 점진적인 자아 인식은 여학생을 보다 특별한 사회적 존재로 자각하게 해주었고, 급격하게 성장한 그들에게 부여된 기대와 의무는 일반 여성과는 사뭇 다른 존재로 구별되게 만들어 주었다.<sup>33)</sup>

근대교육을 받고 성장한 여학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청년 여자/신여자 개념이다. 앞서 애국계몽운동과 학교 설립 등의 교육 구국운동이 성행하면서 신문이나 잡지, 학회지 등에 '청년'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음을 본 바와 같이, '청년여자'는 근대의 주체로 '청년'이 호명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청년여자'와 '신여자'는 의미를 공유하며 자주 혼용되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 방식이 조선인을 회유하기 위한 문화정치로 전환되면서 집회와 언론, 출판에 대한 법령이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에게도 의견을 표명할 기회들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여성만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여성잡지 혹은 여성 교양지는 당시 여성 담론을 구성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1910년대에 외국 문물을 배워 실력을 양성하고자 유학을 다녀온 소수의 여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여자계』(1917)나 『신여자』(1920)가 창간된 것이다. 이 둘은 모두 여성이 주

31)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서울: 혜안, 2009), 181.

32) 『만세보』 1907년 5월 26일자,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83에서 재인용.

33)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85.

도하여 글을 쓰고 여성을 대상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외치는 목소리들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 주었고,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스스로 규명하고자 계몽과 사회 개조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신여자』의 창간사에서 ‘개조’는 곧 “인류의 부르지즘”이요, 세계는 “참으로 개조할 때”가<sup>34)</sup> 되었다고 선언하며, 개조란 “생의 요구의 만족을 구하여 자기 또는 자기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개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라<sup>35)</sup> 천명했다. 여성잡지의 핵심 강령이었던 ‘해방’과 ‘개조’ 사상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여성들에게 이전까지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시대를 도래시킬 주체는 누구인가. 두 잡지는 그들을 청년여자 혹은 신여자라고 불렀다. ‘청년여자’는 ‘청년남자’와 짝을 이루는 말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청년남자’라는 용어는 사용이 드물었고 이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보편 용어인 ‘청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년여자’는 남성 ‘청년’과 구분 짓기 위해 ‘청년’을 매개로 만들어진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여자’는 ‘청년여자’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둘의 용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3·1운동 전후로 각각 창간되었던 두 잡지의 시대적 맥락이나 그 지향점에 따라 용어의 사용과 의미가 구분되며 『여자계』에서는 ‘청년여자’를, 『신여자』에서는 ‘신여자’를 더 자주 사용했다.<sup>36)</sup> 한편 1920년대 초반까지는 용례가 드물었지만 이후 새로운 시대의 여성을 표방하는 말로 더 빈번히 사용되었던 것은 ‘신여성’이다. 이 역시 1923년에 여성지 『신여성』이 개벽사에서 발행된 이후 확산된 용어이다. 『신여자』가 1920년 3월부터 6월까지 월간지 형태로 단기간 동안에만 발행되었고, 『여자계』가 1921년에 종간되면서 이후

34) “창간사,” 『신여자』 창간호 (1920), 2-3이다.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84에서 재인용.

35) “먼저 현상을 타파하라,” 『신여자』 4 (1920), 2-3,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84에서 재인용.

36)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85, 88.

천도교의 여성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신여성』이 발간되었는데, 그 창간호와 논설을 토대로 살펴보면 당시 여학교 출신을 칭하는 말로 쓰던 ‘신여자’에 있어 사회적 책무를 더 강조하고 자유와 평등 이념을 천도교식으로 표현한 ‘사람성주의’를 함축하기 위해 ‘신여성’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전술한 여성지 각각이 갖는 시대적 역할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계몽과 저항, 기대와 우려, 합의를 충돌이 있는 다층적 목소리 등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자세히 논하지 않지만,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소 거칠게 정리해보면, 『여자계』에서는 청년여자와 청년 간의 유대와 화합을 통해 개조 및 사회 개화의 목소리를 강조했고, 『신여자』에서는 청년을 비판함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자각이 보다 뚜렷해지며 ‘신여자’라는 여성주체를 보다 새롭게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신여성』은 ‘신여성’이라는 언표를 재생산하고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신여성에 대비되는 대립 항으로 ‘구여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여성을 ‘진정한 신여성’과 ‘사이비 신여성’, 혹은 ‘도시여성’과 ‘농촌여성’ 등 다양하게 분화시키며 신여성 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갔다.<sup>38)</sup> 이처럼 청년여자/신여자/신여성은 여성의 자각과 사회의식을 북돋우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지적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이자 담론의 대상으로서 조선의 근대 사회 형성을 적극 이루어간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37) 그러나 ‘신여자’와 ‘신여성’은 서로 호환되던 의미어로, 『신여성』의 필진이 당시 주로 사용되던 ‘신여자’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전의 『신여자』와 구분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여겨지기도 한다.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서울: 소명출판, 2009), 219.

38) 『여자계』, 『신여자』, 『신여성』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84-112 참고. 한편 최근 들어 ‘신여성’ 담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의 의미에 대해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전통적 여성과 구분되는 여성으로 단순히 개념화되기는 하지만 그 아래 매우 다양한 의미체를 분화시키고 있어 자칫 그 개념이 불안정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안정성은 오히려 ‘신여성’이 조선에 근대의 의미를 발화시킴에 있어 얼마나 역동적으로 참여했는지 알게 해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9) 한편 조선의 근대 여성 담론을 논함에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과 조직력 신장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애국 활동과 계몽교육을 개진했던 여성단체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국권 회복과 국민 계몽을 위해 여성단체가

## 2) 근대 초기 남성지식인들의 여성교육론과 여성 담론

계몽을 향한 열망과 함께 근대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의 일주체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 초기에 조선의 지적 담론을 형성했던 (남성) 지식인들은 그들 사이에 신구(新舊)의 이념적 차이가 명백했던 만큼 여성 교육에 대한 입장 또한 상반적이었다. 여성을 바라보는 당대 지식인들의 관점은 마치 그들의 근대성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유교적 전통과 봉건적 질서를 고수했던 척사파 지식인들과, 서구 문명과 근대화를 추구했던 개화파 지식인들은 보수와 개혁이라는 양극단에서 여성 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sup>40)</sup> 먼저 전통적인 유교 질서에 기반을 둔 척사파 계열의 지식인들은 가장 보수적인 여성 규범을 견지하면서 여학교 설립 운동이나 ‘여회’(女會) 등 여성 단체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표명했다. 그 대표적 인물로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의암 유인석(毅庵 柳麟錫, 1842~1915)이 있다. 유교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는 의병과 구국에 대한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암집』(毅庵集, 간행연도 미상)에서 여성의 근대 교육에 대한 폐해를 다음과 같이 썼다.

---

꾸준히 조직되었는데, 독립운동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항일여성단체 ‘송죽회’(1910)와 ‘대한애국부인회’(1919)에서부터, 민족주의적이며 점진적인 개량과 교육을 통해 여성해방을 추구했던 ‘조선여자교육회’(1920),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1922),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혁명적이고 급진적 방법의 여성해방을 주장했던 ‘조선여성동우회’(1924), ‘경성여자청년동맹’(1925), ‘경성여자청년회’(1925), 그리고 좌우를 초월하여 보다 통합된 형태의 ‘근우회’(1927)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여성단체는 항일 민족독립운동(국채보상운동, 만세시위운동 등)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설립, 강연회 야학 등 민중 계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국적 민족의식과 여성의 자의식 성장을 고취하여 나갔다. 그러나 여성단체에 속한 대부분 여성 활동가들이 본문에서 논한 신여자, 신여성 개념과 중첩될 뿐 아니라 본고의 논지 흐름을 위해 여성단체의 조직적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40)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24.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여학교이니, 세상 천지에 차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남자들과 평등하자 앞다투어 소리내니, 만물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나.

지금 여자들은 학교에 다녀 순수하고 온전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기인하고 음탕한 풍습을 좋아한다. 안으로 곧은 지조를 잃어버리고 밖으로 간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니, 다만 약삭빠른 태도를 기르고 임기응변의 재주만 늘릴 뿐이다. 그 방자함이 거리낌이 없는데 이르러서, 똑똑한 여자가 되기에 힘쓰지 않는 자가 없으니 과연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sup>41)</sup>

전통 교육 이상의 여성 교육은 여성의 자질과 본분을 넘어서게 하고 만물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적대감과 거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반면 조선의 근대화를 주장하고, 일본이나 서구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개화 성향의 계몽지식인들, 대표적으로 유길준(兪吉濬, 1856~1914), 윤효정(尹孝定, 1858~1939), 서재필(徐載弼, 1864~1951), 윤치호(尹致昊, 1865~1945), 안창호(安昌浩, 1878~1938), 최남선 등은 여성의 지위문제를 제기하며 남녀평등과 천부인권을 내세워 근대적인 여성 윤리를 강조했고, 계몽교육의 한 부분으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sup>42)</sup> 유길준은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머무른 경험을 바탕으로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을 쓰면서 근대적인 여성 교육에 대한 각성을 본격적으로 피력했다.

만약 국가에 불행한 때를 당하면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많아져 일체 사무를 여자가 대신 집행해야 하는데 배우지 않은 여자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자를 가르침이 요긴한 것이며 평시에라도 여자가

41) 『의암집』 본문은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29와 31에서 각각의 국문 재인용.

42)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22.

학식이 있으면 힘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 여자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그 인구가 천만에 이르러도 실상은  
 오백 만에 불과한 것이다.<sup>43)</sup>

그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남성들이 제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여성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하면서, 국가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움이 있는 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녀노소나 상하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독립신문』을 발행한 서재필은 1896년 9월 5일자 기사에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구처럼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논설을 실으며 근대적 교육기관에서의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부에서 사내의 하녀들도 마르치런니와 불쌍한 조선 계집 아녀들을 교육 시키거든 몇기가 아니되야 전국 인구 반이나 내버렸던 거시 쓸 사름들이 될 터이니 국가 경제학에 이런 리는 업고 또 천히하고 박디하던 녀인들을 사나회들이 주청하야 동등권을 주는 거시니 엇지 의리에 맞당치 안하며 장부에 하는 일이 아니리오 [...] 조선 유지각한 녀인테들은 당당한 권리를 썻기지 말고 아모썻록 학문을 비화 사나회들과 동등이 되며 사나회들이 못하는 스업을 홀 도리를 하여보기를 바라노라.<sup>44)</sup>

그에 의하면 조선 인구의 반이나 되는 여자아이들을 나라(대한제국 학부)에서 교육시킨다면 반드시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며, 남성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얻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되어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논했다. 이처럼 계몽지식인들은 대개 여성의 국민화를 주장하며 여성 교육의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의 일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적 흥망이 계몽된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던 이들은 여성에게 교육이 필요한 근거가 계몽된 국민을

43) 『서유견문』 본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되었으나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54에서 국문 재인용.

44)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74에서 재인용.

양성하는 ‘어머니의 역할’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여성은 장차 국민이 될 아이들을 교육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었다.

아이의 나라의 근본이요 여자는 아이의 근본이니 오늘의 어머니는 예전의 어린 여자아이라. 그러므로 어린 여자아이가 실상은 나라 근본의 근본이거니와 만약 교육을 베풀지 않으면 나라 근본의 근본되는 직책을 능히 닦기는 고사하고 그 근본을 병으로 해할 따름이니 가히 삼가고 두려워할 것이 이것이다.<sup>45)</sup>

『서유견문』에서 인용한 위의 글에서 유길준은 ‘나라의 근본의 근본’은 ‘어린 여자아이’라고 언급하면서, 결국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차 어머니가 될 여자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재필 역시 여성 교육의 명분이 국민 양성에 있음을 내세웠는데,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자 논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지각 비흠 동안은 어머니 슬하에 자라는 고로 그 어머니의 지식과 학문 유무가 자녀의 교육에 크게 관계가 되는 것이니 만일 녀인 교육이 성행하면 사람마다 지식있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성인후 엇지 총명흔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오.<sup>46)</sup>

사람은 어머니 슬하에서 배우며, 지식과 학문이 있는 어머니만이 총명한 사람 즉 계몽된 국민을 기를 수 있을 것이요 그렇기때문에 여성 교육이 중요한 것이라 내세웠다. 유길준이나 서재필 등은 근대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있어야만 신체 건강하고 올바른 인격을 지닌 근대적 국민을 양성할 수 있다고 논하면서, 여성 교육의 명분을 오직 ‘국민의 어머니’, ‘국가의 인재를 기를 역량

45)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55에서 재인용.

46)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200에서 재인용.

을 갖춘 어머니', 즉 '국가 현모'에 두었다.

이렇게 정립된 국가 현모상은 이후 1900년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근대 초기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대한자강회월보』(1906~1907), 『대한학회월보』(1908), 『기호흥학회월보』(1908~1909) 등 애국 계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학회지를 통해 '훌륭한 국민을 기르고 양성하는 어머니', '여성 교육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 '나라의 부패를 개량하고 신인류를 세우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여자교육에 있다는 식의 논조로 반복, 강화되었다.<sup>47)</sup> 이와 함께 국가와 민족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가족' 개념이 중시되고, 가정교육이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녀 교육법 등이 부각되면서 '가정학', '육아법', '가정위생학' 같은 서구의 근대 지식들이 국민의 어머니로서 여성이 익혀야 할 지식으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에게 허락된 근대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항상 가족과 민족, 국가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계몽지식인들이 제시한 여성 교육의 내용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대 지식의 획득을 통해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여성상, 새 시대의 여성상이 주조되었지만, 결국 여성을 '어머니' 위치에 한정시킴으로써 '모성'이라는 정체성만 강조할 뿐 여성의 자율성이나 자의식, 주체적 자기 계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전통사회의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대상화되었었다면, 근대사회의 여성은 국가의 어머니라는 공공의 모성을 강요받으며 공적 영역에서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도구로 재구성되었을 뿐이었다.<sup>48)</sup> 다만 기존의 전통사회에서 평가절하되어왔던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재평가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이 역시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으로만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은 근대 교육의 기회를 통해 집안을 벗어나 사회로 한발 나설 수 있게 되었지만 한 개인으로 그 존재와 삶을 인정받고 사회와 다

47) 학회지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은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56-160 참조.

48)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62-163.

양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모성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근대적 어머니라는 표상으로 또다시 가족 내부로 소환됨으로써 국가 공동체에 완전히 종속되길 강요받았다.<sup>49)</sup>

어머니 교육의 당위성과 ‘가정의 개화’가 곧 ‘국가의 개화’라는 기치 아래 이후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된 이상적인 여성상은 ‘현모양처상’이다. 여성 계몽의 주요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현모양처’가 조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6년 여자교육회의 양규의숙 설립 취지문에서였다. “학문과 여공(女工)에 정예(精藝)와 부덕순철(婦德順哲, 부녀자의 덕행과 도리를 잘 지킴으로써 총명하게 됨)을 교육하여 현모양처의 자질을 양성 완비”케 하겠다는 취지문은, 현명한 어머니’이자 ‘어진 아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문명개화를 위한 여성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자교육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식 고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요량으로 남성지식인이 주축이 된 찬무소를 구성했고, 여성을 교육하면 자녀교육을 잘하여 국가의 기둥 될 자를 배출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 하에 여성 교육이 자강의 기초임을 역설하였다.<sup>50)</sup>

49) 근대 초기에 형성된 이러한 ‘국가 현모론’은 철저히 남성중심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 최초의 여성운동 단체라 할 수 있는 ‘찬양회(贊襄會)가 발표한 “여권통문”(女權通文)을 살펴보면, 남성 계몽지식인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성 근대교육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혹자 이목구비와 스지오관 룩테가 남녀가 다름이 잇는가. 엇지하여 병신 모양으로 사나히의 버러주는 것만 안져 먹고 평상을 심규에 처하야 놀의 절제만 맞으리오. [...] 엇지하여 스지룩테가 사나히와 일반이여늘 이긋흔 양제를 밋어 세상 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름 모양이 되리오 이저는 넷 풍규를 전폐하고 기명 진보하야 우리나라도 타국과 궤치 녀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녀아들을 보닉어 각항 직조를 비호아 일후에 녀중군즈들이 되게 하올 츠로 방장 녀학교를 창설허오니 [...]”(『황성신문』 1898년 9월 8일자,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164-165에서 재인용). 남녀에게는 육체적인 차이가 없으니 여자라고 하여 수동적이지 말고 억압받지도 말고 자주적일 것을 당부하며, 여학교를 통한 여자아이들의 교육 목적을 ‘어머니’가 아닌 덕이 높은 여자를 뜻하는 ‘여중군자’(女中君子)에 두고 있다.

50) 그러나 이같은 목표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대여성정책 가운데 ‘일본식양처현모주의’ 교육정책을 수입함에 따른 것이며, 통감부의 중요한 식민지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조선교육회에 의해 발기된 양규의숙은 명백히 일본의 여학교를 모델로 구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경숙, “대한제국기 여자교육회의 조직과 구성원 연구,” 『정신문화연구』 34 (1988), 174-175.

현모양처상은 비단 남성들만의 주장은 아니었다. 여성에게 “일가(一家)의 주부”이자 “가정의 주인” 될 것을 요청한 것은 『여자계』나 『신여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완전한 가정이 있어야 완전한 사회를 지배하고 완전한 사회가 있어야 완전한 국가가 있다”는<sup>51)</sup> 논리 아래 가정주부로서 가정교육자로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조했다. 남녀불문 조선의 계몽지식인들은 부강한 국가 만들기 위한 여성 교육의 일차적 목적으로 현모양처상을 설정했다. 예외적인 소수로 현모양처론을 비판하는 지식인도 있었고 사회적 분자로서 여성의 삶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sup>5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현모양처론에 균열을 가하지는 못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위해 스스로 인내하고 끊임없이 포용하는 아내의 모습에 대한 논의는 근대 시기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고,<sup>53)</sup> 여성의 가정 내 역할만을 강요했던 현모양처론은 교육받은 근대 여성이 지향해야 할 규범이자 사회적으로 강제된 지배담론이었다.<sup>54)</sup>

### 3) 여성용 계몽교재

한편 근대 시기에 이르러 여성 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해서 이전의 조선 시대에 여성 교육이 부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 담장을 넘어 근대식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행해진 여성 교육은, 유교 전통에 따라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진 교육과는 확연한 차이가

51) 춘강, “신여자의 자각,” 『여자계』 4 (1920), 33.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85에서 재인용.

52) 김경애, “현모양처론에 대한 근대 남성지식인의 비판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8/2 (2009), 97-124 참고.

53) 전미경,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2/3 (2004), 75-93 참고.

54) 한편 오늘날 현모양처상은 조선 유교 전통의 전형으로 이해되곤 하는데, 이는 1970년대 정책적으로 신사임당이 대표적인 현모양처로 상징화되면서부터 생겨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김연순, “개화기 여성교육에 내재된 유교적 여성관,” 『페미니즘연구』 10/2 (2010), 57.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여성 교육의 가치 기준, 내용과 방법 등이 이전과 크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지식만을 강요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 교육을 학교를 통해 제도화시키고, 공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사회생활을 양산함으로써 여성을 사회적 구성체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초기 여성 교육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대 여성 교육의 산실로 ‘여학교’의 역할은 분명했지만 실제로 학교를 통해 제도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극소수의 여성으로 제한적이었고,<sup>55)</sup> 대부분 여성의 삶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전통 세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근대 지식인들은 계몽과 여성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계몽교재를 간행하였고, 이를 통해 근대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여성의 모습을 기대했다. 당시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 담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면, 여성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당대 지식인들의 여성교육관이 직접적으로 수렴된 것은 여성을 위한 교육 교재 혹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용 교재는 신문, 잡지에 비해 사회 비판적이거나 선동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지만, 추구되어야 할 이상적인 여성상과 이에 합당한 성역할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특히 계몽교재의 핵심 역할은 근대사회의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사회 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sup>56)</sup>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용 계몽교재는 여성이 새로운 국민

55) 초등 과정의 취학률은 1912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7.6%와 1.0%였고, 1920년에 20.9%와 4.7%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여자의 학교 교육 경험이 점차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비중이었으며, 당시 90% 이상이 여성 문맹 인구였다. 여학생의 진학률은 점차 높아졌으나 남자에 비해 여자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한정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소, 『한국근대학교교육100년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참조, 장미경, “〈수신서〉로 본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여성’ 교육,” 『일본어문학』 41 (2009), 379에서 재인용, 384 참조.

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적 토대가 되어주었다. 당시 출판에 대한 일제의 검열은 강화되었지만,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근대적 지식 문화가 형성되고, 다수의 사립학교 설립과 함께 각급 학교에 사용될 교육용 교재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출판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여성 관련 지식들이 여성용 교육서의 내용으로 집약되었다.

근대 시기 동안에 여성용 교육자료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했다. 근대 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서인 ‘가정 교과서’가 새롭게 간행되었고,<sup>57)</sup> 반면 유교 전통 교

56)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용 교과서, 근대적 ‘여성’의 기원과 형성,” 198.

57) ‘가정’ 및 ‘가사’는 철저히 여성 역할의 범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된 가정교과는 여학생에게만 배우도록 요구되었던 일련의 교과목이었다. 특히 1908년에 ‘고등여학교령’과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1909 개정)에 의해 여성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수과목 등이 규정되면서, 가사(家事), 수예(手藝), 재봉(裁縫) 등이 여학생 대상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고등여학교로 진학하는 여학생들은 모두 가정관리 지식이나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행동규범 등을 가정 교과에서 배워야 했다. 더욱이 근대 시기 ‘가정’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서의 의미보다 민족과 국가의 한 구성체로서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문명의 척도로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고, 이에 가정 내의 효율적인 가사 관리와 전문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여성에게 요구되면서, ‘가정학’은 여성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학문이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았다. 음식, 의복, 주거, 위생, 양로, 자녀교육, 재정관리 등 가정생활을 다루는 새로운 실용 학문으로서 ‘가정학’은 서구에서 일본과 중국을 거쳐 국내에 전해진, 그야말로 수입된 지식이었다. 서구의 ‘가정학’(Domestic Science) 관련 서적을 번역, 보급했던 일본에서, 당시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 1854~1936)가 유럽을 직접 시찰한 후 과학적 가정관리 지식과 여성들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신선가정학』(新選家政學, 1900)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곧 중국과 한국에 유입되어 중요한 가정학 교과서가 되었다. 먼저 중국 상하이에서 『신찬가정학』(新撰家政學, 광저서국, 1902)으로 번역, 발행되었고, 또 중국인 일본유학생 단체인 작신사(作新社)가 내용구성을 재편집, 한역하여 『신편가정학』(新編家政學, 1902)을 출판했다. 이후 조선에서는 시모다의 『신선가정학』을 순국문으로 번역한 『국문 신찬가정학』(新撰家政學, 박정동 역, 중앙서관, 1907)과, 중국 작신사의 『신편가정학』을 기반으로 번역한 『한문가정학』(漢文家政學, 현공림 역,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 순한문, 1907), 『신편가정학』(新編家政學, 현공림 역,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 국한문, 1907), 『신정가정학』(新訂家政學, 현공림, 유일서관, 국한문, 1913) 등이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08년에 가정 교과를 위한 교과서로 처음 학

육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는 조선 시대의 ‘여훈서’(女訓書)류도 지속적으로 출판되며 공존했다.<sup>58)</sup> 그러나 학교 수업을 위한 교과서 역할 뿐 아니라 대중 계몽을 위한 사회교육 교재,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독습 자료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읽기 및 쓰기를 위한 국어과 교재인 ‘독본’과, 가치 덕목을 가르치는 윤리과 교재인 ‘수신서’였다.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민간 지식인들에 의해 제작된 이러한 계몽교재들은 새로운 교육의 기본

---

부 인가를 받았으나, 교육 통제가 강화되면서 1915년에 최종적으로 총독부에 의해 불인가 도서로 처리되었다. 한편 시모다 『신선가정학』의 일부 내용은 당시 잡지에 연재되기도 했는데, 근대 신학문과 신지식을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보급했던 잡지 『조양보』(1906년, 7회 연재)와 『호남학보』(1908-1909년, 9회 연재)에 소개됨으로써, 근대의 합리적인 생활 개선을 지향하는 ‘가정학’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유통되었다. 김명선, “고등여학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주저지식(1908-19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2010), 2648-2653.,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151-171., 최정희, “근대 가정학의 도입과정과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84 (2023), 109-139 참고.

- 58) ‘여훈서’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전통적 여성 훈계서이다. 조선 시대에 주로 사대부 가문 즉 지배층의 세력을 강화하고 사회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문 내 여성을 교화,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여훈서는 대개 폐쇄적 교육공간 안에서 여성의 내면 수양과 덕성 교육, 집안 내에서의 도리와 역할 등을 중시하며, 특히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등 가부장적 유교 규범이 내면화된 ‘부덕’(婦德,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행)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15세기 소혜왕후의 『내훈』(內訓)을 필두로 조선을 대표하는 여훈서로서 17세기에 우암 송시열(1607~1689)의 『계녀서』(戒女書)가 만들어졌으며, 18세기 영조 연간에는 중국의 여성 교훈서인 『여사서』(女四書)가 널리 전파되었다. 전통적 여훈서는 가문과 민간출판사를 통해 그 명맥이 이어져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유효했으며, 심지어 보수적인 틀을 고수한 여훈서들이 새롭게 제작되기도 했다. 『현토주해 여자보감』(懸吐註解 女子寶鑑, 박건희 저, 회동서관, 1914), 『규문궤범』(閨門軌範, 경암 왕성순, 해동인쇄소, 1915), 『부인행실록』(婦人行實錄, 권순구 저, 광학서포, 1916), 『명원 신여자보감』(名媛 新女子寶鑑, 강영명 편찬, 영창서관, 1922), 『여자행실록』(女子行實錄, 김동진 저, 덕흥서림, 1927), 『규문보감』(서우석 편, 선광인쇄주식회사, 1935) 등. 이러한 여훈서는 대개 여성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나 규범을 ‘열행’, ‘효행’, ‘모성’ 등의 항목으로 나열하여 훈계하거나, 모범이 될 여성 인물의 예화 및 전기를 기술하여 여성이 본받아야 할 여성상을 제시해 두었다. 근대 시기 여훈서에 대해서는 임미정, “20세기 초 여훈서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2009), 337-360과 김수경, “개화기 여성 수신서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교차,” 『한국문화연구』 20 (2011), 99-137 참고.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절충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고자 했다.

그런데 근대 시기 민간에서 여성용 계몽교재로 개발 보급된 독본이나 수신 서류는 대개 초등소학 수준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이후 본고에서 논할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청년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초등수준의 교재와는 내용의 구성범위나 그 역량에 있어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제작된 중등 수준 이상의 여성 교재를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남성 지식인들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구성해 내는 방식이나 여성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에는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해당 창가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 교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초등에서 중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여학생 수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았고, 특히 민간에서 발행된 여성용 계몽교재 대부분이 연령 구분 없이 그리고 학교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 전반을 위한 읽기 교재의 역할을 목표로 했던 것을 고려한다면,<sup>59)</sup> 여성 대상의 계몽교재에 있어 초등과 중등 구분의 경계는 불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부(學部)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찬 교과서’와, 민간단체나 개인이 발행한 ‘사찬 교과서’ 총 133권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로 구분하여 해제한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2022)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만을 위한 계몽교재로 제작된 ‘개화기’의 사찬 교과서로는 『초등여학독본』(1908), 『여자독본』(1908), 『부유독습』(1908), 『여자소학수신서』(1909)가 있으나, 이후 ‘일제강점기’에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사찬 교과서는 부재했다.<sup>60)</sup> 1909년 저작물의

59) 이후에 살펴볼 여성용 교과서와 같이 그 제목에 ‘초등’이나 ‘소학’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독자의 연령층을 뜻하기보다는 내용의 수준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재들은 대개 여아, 여학생, 부녀자, 부인 등 넓은 연령층의 여성을 독자로, 계몽 대상으로 삼고 있다.

60) 참고로 관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개화기 동안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과 일제강점기의 초등 과정에서 여학생만을 위한 단독 교재는 제작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 중등

허가와 검열 규정이 강화된 출판법이 공표된 탓에 민간에서의 출판 활동은 위축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전반적으로 사찬 독본의 출판이 크게 줄어들었다.<sup>61)</sup> 그러나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책의 영향으로 검열이 일부 완화되면서 신문이나 잡지 창간이 붐을 이루었던 가운데 (남성) 청년을 위한 사찬 교재로 『이십세기청년수양독본』(1922), 『현대청년수양독본』(1923) 등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제작 교재는 민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신여성 담론이 활발하게 구성되던 1920년대에 여성을 위한 교육용 교재가 부재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근대계몽기에 출판되었던 교재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화 정책이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의 전환 같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청년 담론과 신여성 담론에 비해, 1900년대 후반에 자리 잡은 지식인들의 여성교육관, 즉 근대 시기 이상적인 여성을 표상하는 방식과 그 가치, 그리고 성역할 교육의 기본방향 등은 이후에도 뚜렷한 변화 없이 견고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굳이 여성용 교재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920년대 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교육은 그 이전에 제작, 유포되었던 여성용 교재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개화기나 일제강점기에 중등 과정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찬 여성용 교재

---

과정에만 ‘여자’라는 표기가 제목에 붙은 여성용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해당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관찬 조선어 독본으로는 『여자고등조선어독본』(1925),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1936~1937)이 있고, 국어(일본어) 독본으로는 『여자고등국어독본』(1920~1925), 『(신편)여자고등국어독본』(1926), 『중등교육여자국문독본』(1932~1935), 『중등국어(여자용)』(1938~1943)이 있으며, 수신과로는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1925~1926), 『중등교육여자수신서』(1938~1941)가 있다.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편,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와 송숙정,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에 관한 고찰,” 『비교일본학』 54 (2022), 241-263 참고.

61) 앞의 책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 자료집이 제시한 해제 대상 교과서 가운데 개화기의 사찬 독본은 69종인 반면, 일제강점기 사찬 독본은 13종에 불과하다.

가 부재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여성 교육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여성에게 기본적인 지식수준 이상의 학문적 향상은 전혀 기대되지 않았고 그들의 교육관은 사회 절충적 목적에 그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새롭게 제작된 계몽 교과서 가운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독본’은 마음과 행실을 수양하여 정신적 바탕을 바르게 기르게 한다는 ‘수신서’와 그 내용을 공유하며 근대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독본류와 수신서류는 다른 교과들에 비해 ‘성’ 구분에 따른 교육내용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특히 『초등여학독본』, 『부유독습』, 『녀자소학수신서』, 『녀자독본』 등과 같이 여학생용으로 따로 간행된 교재들은<sup>62)</sup>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도리, 본분, 미덕, 정체성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나 혹은 여성의 성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했다.

독본으로 제작되었지만 수신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초등여학독본』(初等女學讀本, 이원궁, 보문사, 1908)은<sup>63)</sup> ‘서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 62) 도덕, 윤리에 해당하는 ‘수신’ 교과는 근대 성격의 교과 교재가 조선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 목적이나 내용을 성별 구분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다. 1895년 2월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근대적 학제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교육조서(教育詔書)’가 발표되면서, 과학적 지식과 실용을 추구하는 신교육이 강조되었고 동시에 ‘덕육(德育), 지육(知育), 체육(體育)’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밝혔다. 이 중 전(全) 국민의 ‘덕육’을 위한 교과로 ‘수신과’가 요청되었는데, 소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과 그 요지에 대해 밝히는 ‘소학교 교칙대강(小學校 教則大綱)’에서 언급하기를, ‘수신’은 “아동의 양심을 계도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인간된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중략] 결국에는 애국할 수 있는 사기를 기르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학생은 따로 정숙한 미덕을 기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개화기 여성 수신서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교차,” 104-105에서 재인용.
- 63) 저자 이원궁(1849~미상)은 1904년 국문교육회를 조직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개화기 교육자이다. 『초등여학독본』은 한자에 한글 토가 달린 국한문혼용체 구성으로 옆에 한글로 풀어쓴 내용이 병기되어 있다. 그 해제 및 내용은 허제영 외 (역), 『근대수신 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 2011), 175-207 참조.

지금에 와서 풍습이 크게 열리고 여자의 권리가 비로소 해방을 맞았으니 남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급하다. 처음 배우기를 시작할 때 '수신'을 마땅히 먼저 가르쳐야 덕을 기르는 교육으로써 기반이 잡힌다 할 것이다. '덕'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지식과 몸의 가르침이 서로 보완되어 간다면 여자들의 성장이 남자들과 더불어 장차 같아질 것이다.<sup>64)</sup>

저자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여성 교육의 시급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출발점을 '지식'보다는 여성의 '덕'에 대한 가르침으로 삼음으로써, 남녀 구분이 엄격한 전통적 여훈서 내용을 답습하고 가족 관계 내의 질서와 유교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명륜', '입교', '여자의 행실', '마음을 다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 '남편 모시기', '시부모 모시기', '시동생 시누이와 화목하기' 등 8개의 장(章)으로 구성된 독본은 전통 시대의 덕목을 이어받아 전승하려는 양상이 보다 강하며,<sup>65)</sup> 겸손, 공경, 순종적 태도를 중시하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시가(嫗家)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지켜나갈 것을 고수했다.

기존의 여훈서 구성에서 벗어나 보다 읽기 쉬운 순한글 서술의 새로운 틀로 여성 교육을 강조한 『녀자소학수신서』(女子小學修身書, 노병선, 박문서관, 1909)는<sup>66)</sup> 여학생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총 53과의 항목으로 나열하여 서술해두고 있다. 마지막 과인 '총론'에서 "모든 일은 먼저 해야 할 것도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도 있으니,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야 천만 가지 행하는 일에 단단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본 책은 여성이 배워야 할 도(道)와 덕(德)에 대한 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64)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181-182에서 재인용.

65) 이러한 구성은 특히 소혜왕후의 『내훈』과 매우 유사하며 전통적인 여성 교육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수경, "개화기 여성 수신서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교차," 107-108.

66) 진명여학교 교사를 지내기도 했던 저자 노병선(1859~미상)은 근대 교육에 앞장선 개화기 교육자이자 계몽사상가이다. 순한글로 제작된 『녀자소학수신서』의 해제 및 내용은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209-252 참조.

러나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듯 수신의 영역이 이전보다 확장되어 다루어졌는데, ‘학교’, ‘교육’, ‘공부’, ‘학문’ 등 여성의 배움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고, ‘씻고 닦는 일’, ‘의복’, ‘깨끗하게 할 것’, ‘시간’, ‘운동’ 등 근대 생활에 요구되는 생활 규범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일러두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여자가 배울 것’은 길쌈과 바느질, 음식 등임을 강조하거나, ‘삼강오륜’, ‘아내의 도리’, ‘어진 아내’, ‘어진 어머니’ 등 전통적 유교 질서를 강요하였다. 이에 이상적인 여성상을 ‘여중군자’(女中君子)로 꼽으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에게 우애하고 친척에게 화목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아랫사람을 용납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여중군자가 될 터이니.”라고<sup>67)</sup> 하며 여성의 학식이나 덕행을 가족 내 영역으로만 한정시켰고, “여자는 나라 백성의 어머니 될 몸이니 어머니 될 사람이 무식하고 학문이 없으면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백성이 되겠는가. [중략] 청년 여자 학생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단정히 가져 훗날 국민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sup>68)</sup> 하여 배움의 목적이 오로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에만 있음을 역설하는 등 가족 내의 여성 역할 안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을 견지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독학용 한자 자습서 겸 국한문 독본인 『부유독습(婦幼獨習)』(강화석, 황성신문사, 1908)은<sup>69)</sup> 국한문 책이나 신문 읽기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한자 학습과 어학적 지식 습득을 통해 문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당시 사회 세태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리하여 다른 교재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만이 갖춰야 할 덕이나 행실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학문을 배워 변모하는 세상을 알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상하 2권

67)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220-221, 제8과 ‘본분’에서 재인용.

68)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236, 제26과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재인용.

69) 저자 강화석(1845~1929)은 독립협회, 서우학회, 서북학회 등에 참여한 계몽운동가로 대한 황성신문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서북협성학교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강화석 (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2) 참조.

구성 내에 『중용』, 『시경』, 『논어』 등의 구절을 짧게 인용하여 인간 도리의 기본 내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역사, 사회 조직, 새로운 제도, 생활실용 상식 등 기초 지식에 대해서도 다루었고, 애국과 근대화에 대한 바람을 강조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가르침을 내용으로 구성해 내었다. 동시에 여성 관련 가치를 밝히기도 하는데, “대저 천지만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남녀가 일반인데 어찌하여 남자만 학문을 공부하고 여자는 학문을 모르리오.”<sup>70)</sup> 혹은 “우리나라 인구 이천만의 여자가 그 반수이니 이 남녀가 교육이 없으면 어찌 다른 나라 인민이 모두 계몽한 것에 대적하겠는가. 그러므로 여자교육은 인종의 일대 기관이다.”라면서<sup>71)</sup> 남녀의 동등함을 인식하고 여성에게 배움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며 여성도 학문을 배워 세상을 알고 애국에 힘쓸 것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충군 애국하는 남자의 후원이 되니, (중략) 배 짜고 바느질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애국의 도로써 교육함이다.”<sup>72)</sup> 혹은 “부인이 학문이 없으면 가정교육을 알지 못하여 자녀의 덕성을 배양하지 못하니 이로써 여자계에 교육이 없으면 남자계에 교육이 또한 완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sup>73)</sup> 하여, 여성을 독립된 한 개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국가와 가정, 그리고 남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여성이 애국을 위해 배워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여성 교육의 목적이 장차 국민이 될 자녀를 가르치기 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의 가정교육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에는 다른 교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전술한 여성 교재들이 주로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지침에 대해 다루었다면, 『녀자독본(女子讀本)』(장지연 편집, 광학서포, 1908)은<sup>74)</sup> 역사적으

70) 강화석 (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15.

71) 강화석 (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104.

72) 강화석 (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84.

73) 강화석 (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103.

74) 『녀자독본』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단어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로 본받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엮은 열전 형식의 독본이다. 여성 인물들의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여성 계몽과 교육을 통한 새로운 여성상을 설정하고자 했던 장지연은 책의 총론에서, “여자는 나라 백성 된 자의 어머니 될 사람이다. 여자의 교육이 발달한 후에 그 자녀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곧 가정교육을 발달시켜서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는 모범이 된다.”라고 쓰며 여성 교육의 뜻이 나라를 위한 국민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국권 침탈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국민화를 꾀했다. 그리하여 『녀자독본』의 ‘상권’에서는 ‘김유신 모친’, ‘이율곡 모친’, ‘온달 처’, ‘송 열부’, ‘의기 논개’ 등 우리나라 여성들의 행적을 다루며 아들 교육, 남편 내조, 정절, 절개 등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 및 덕행 등을 강조하였고, ‘하권’에서는 중국(‘목란’, ‘진양옥’ 등)과 서양(‘마리타’, ‘여안’ 등)에서 이름난 여성들 가운데 여성 영웅이나 여성의 구국 활동, 사회개혁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내용을 담았다.<sup>75)</sup> 『녀자독본』에서 제시한 이러한 모범적 여성상은 ‘지와 덕을 겸비한 학식 있는 (아들의) 어머니, 아내’, ‘자식이나 남편에게 열심히 권면하는 여성’, 그리고 ‘나라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76)</sup> 이 가운데 특히 하권에서 제시된 외국 여성 인물들은 주로 공적 정치·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에 앞장선 여장부 혹은 국가 영웅인 여성으로,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의 여성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모범상은 여

장지연 (편) / 문혜윤 (역), 『여자독본』 (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2) 참조.

75) 중국의 ‘목란’은 아버지 대신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군공을 세운 여성이며, ‘진양옥’은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군대를 거느렸던 여성이다. 서양의 ‘마리타’는 남편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여성이며, ‘여안’은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를 칭한 것이다. 잔 다르크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1907)에서 ‘약안’으로 표기되었다.

76) 조경원, “대한제국 말 여학생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교육론의 특성과 한계: 『여자독본』, 『초등여학독본』, 『녀자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0 (1999), 181.

성의 근대의식과 구국 의지를 복돋울 자극제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다.<sup>77)</sup> 그러나 조선이 아닌 중국과 서양의 범주로만 구분하여 이를 언급한 것은 여성 인물들 사이에 암묵적인 위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sup>78)</sup> 당대 조선 여성 교육의 현실과는 다소 무관한 이상적 모범상 정도로만 다루어졌을 것이라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소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여성의 문해율이 낮았던 시기에 비교적 넓은 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계몽교재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독립심을 촉구하며 남녀평등에 대한 이상화된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근대적 개인으로 또는 인격적 주체로 여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부녀자로서 갖춰야 할 유교 전통의 행실과 덕목을 중시하고 ‘국가의 어머니’, ‘현모양처’ 등 가족 관계를 통해 한정된 성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전근대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근대 계몽교육의 연속선상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sup>79)</sup>

#### 4.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여성 교육 교재로서의 의미

##### 1) 창가집 구성에 대한 이해

‘문명의 소리’ 또는 ‘개화의 소리’로 인식되는 창가는 한국 근대를 사유하고 통찰할 수 있는 저장소로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표출하고 새 시대의 의식 및 규범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음악의 실용적 가치가 우선시된 장르

77)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용 교과서, 근대적 ‘여성’의 기원과 형성,” 199.

78)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 그리고 애국부인들,” 『반교어문연구』 35 (2013), 98.

79) 반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수신서인 『초등윤리학교과서』(안종화, 1907), 『초등소학수신서』(유근, 1908) 등에서는 자유, 권리, 책임 그리고 공익과 공덕과 같은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가치 교육의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민재, “근대계몽기 여학생용 초등수신서의 특징과 한계 연구,” 『초등도덕교육』 43 (2013), 54.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이 닿아있다고 보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1921년에 경성 종로에 위치한 ‘광문서시’에서 발행되었고, 작곡가는 정산 백우용(鼎山 白禹鏞, 1883~1930), 저작자는 해사 정경운(海史 鄭敬暉, 생몰년도 미상)으로 표지에 기재되어 있다. 백우용은 대한제국의 양악 군악대를 창설한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1852~1916)에게서 서양음악을 배웠고, 최초의 군악대장, 이왕직악부 양악대의 양악사장(洋樂師長) 등을 지내며 악기 연주, 지휘, 작곡, 교육 그리고 아악 채보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 시기 서양음악 발전에 기여했던 인물이다. 저작자 정경운에 대한 자세한 약력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인쇄소 겸 서적 발행소인 ‘광문서시’의 발행자로,<sup>80)</sup> 『낙원창가』(1920/1921), 『화산월대농금창가』(1922) 등의 유행 창가집과 『동서위인창가』(1921), 『조선명승지리창가』(1921), 『조선지리경개창가』(1921) 같은 교육용 창가집 등 다수의 음악 출판물 발행에 힘쓴 대표적인 근대 지식인이다. 정경운이 ‘저작’한 것으로 밝혀둔 창가집들 가운데 그가 직접 창가의 가사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많은 경우 당시 신문이나 잡지, 교육 교재 등의 경로를 통해 가사를 마련하고 재구성한 정도에서 ‘저작’한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그는 가사의 출처를 밝혀두지는 않았지만 1920년대 초 유행되었던 글들을 창가의 가사로 택함으로써 당시의 정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시대 요구에 따른 근대 지식 구성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1)</sup>

또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는 창가집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정, 보완하

80) 광문서시에 대해서는 장정운, “1920년대 한국 근대음악 문화 지형그리기: 음악출판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63-93 참고.

81) 정경운이 1921년에 노영호(盧永鏞) 작곡으로 발행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 수록된 악곡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갖는 곡이 두 곡 있다. 그 중 하나인 〈소년소녀〉는 두 창가집에서 모두 동일한 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인 〈공부의 바다〉는 제목만 동일하고 가사는 서로 다르다. “공부의 바다는 압히 멀고나”로 시작하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수록의 〈공부의 바다〉는 최남선의 『시문독본』(1916/1918)에서 동일 내용의 시로 찾아볼 수 있으며, 1921년 1월에 발행된 『개벽』 7호에도 소개되었다.

는 교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 교열자 12인의 이름과 소속, 직책이 명시된 “교열자방명”(校閱者芳名)이 수록되어 있다. ‘여자교육회’ 회장 김미리사, ‘밀양여자청년회’ 회장 고원섭, 이화학당 교사 임배세와 김활란, 그리고 태화여자관, 배화학당, 중앙유치원 교사 등 대개 여성 교육가이자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던 인물들이 교열에 참여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sup>82)</sup> 글의 배경이나 진위 여부, 관련 지식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는 지적 작업이 ‘교열’이며, 이는 잘못된 문법 표기 등을 수정하고 검열하는 ‘교정’ 이상의 내용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12인의 여성 교열자들이 본 창가집의 ‘교열’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또 그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보완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교열자방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창가집의 내용 구성에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남성 저작자가 여성을 위한 최신의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있어, 당시 여자 청년단체, 여자 교육기관에서 활약하던 여성 교육가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이름을 필요로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창가집들과 마찬가지로 정경운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가사들을 몇 편이나 직접 썼는지 혹은 신문, 잡지 같은 매체에서 어느 정도 발췌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일부 가사는 당시 여성 담론 형성에 적극적이었던 여성 잡지와와의 연관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특히 창가집의 가사 여러 편이 『신여자』에 실린 운문 시들에서 찾아지는데, 정경운은 『신여자』 1호(1920년 3월)와 2호(1920년 4월)에서 모두 6편의 시를 가사로 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3)</sup> 1920년 3월에 김일엽(金一葉, 1896~1971)에 의해 창간된 『신여자』는 여성이

82) 여성 교열자 12인에 대한 정보는 조운영,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노래: 백우용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를 중심으로,” 『음악학』 28 (2015), 78-81 참고.

83)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수록 악곡 가운데 〈의무〉, 〈새벽의 들〉, 〈수영의 황혼〉은 『신여자』 1호에서, 〈봄이 움〉, 〈생의 애〉, 〈신년가〉는 2호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의무〉와 동일 내용을 갖는 시는 『신여자』에서는 별다른 제목이 붙어 있지 않으며, 〈수영의 황혼〉은 〈수향의 황혼〉으로, 〈신년가〉는 〈신년의 신가〉 등으로 제목 표기에 일부 차이가 있다.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서울: 푸른사상, 2006) 참고.

주체적으로 만든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잡지로, 당대의 새로운 여성관을 소개하고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에 대한 논설이나 문학작품을 신는 등 여성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여성 의식 향상을 위한 담론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경운이 『신여자』로부터 몇 편의 시를 가사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가 여성주의 담론 주창에 적극 동참했다거나 여성의 저항 의식에 동조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대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여자』 창간호의 첫 글인 “창간사”를 가장 먼저 연 단어는 ‘개조’와 ‘해방’이었다. 개조를 “참혹한 포탄 중에서 신음하던 인류의 부르짖음”으로, 해방을 “암암한 방중에 갇혀 있던 우리 여자의 부르짖음”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는 “개조! 개조! 이 부르짖음은 전 세계의 끝으로부터 끈까지 높게 크게 외쳐 납니다. 참으로 개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 새로운 시대는 왔습니다. 모든 현 것을 거꾸러뜨리고 온갖 새것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라며,<sup>84)</sup> 새 시대를 향해 여자의 ‘해방’을 거쳐 보다 나은 사회를 목표하는 ‘개조’를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개조’는 당시 청년 담론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었다. 하지만 정경운은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가사를 저작하는 과정에서 ‘개조’란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급급개량〉과 같은 악곡을 통해 ‘개조’ 대신 ‘개량’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개조’와 ‘개량’은 기존의 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그 용례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개조’는 ‘국민 의식의 개조’와 같이 추상적 대상에 정신적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갖지만, ‘개량’은 ‘성능개량’ 같이 대개 물질적이거나 기술, 기구, 혹은 관습, 풍속 등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정경운이 해당 창가집에서 보다 의식적이고 추상적 개념인 ‘개조’를 여성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개조’와 ‘개량’ 사이의 층위를 인식하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위계적 차이를 두고자 했던 남성 지식인의 의도로 읽어볼 수 있다.

84)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102-103.

또한 정경운이 『신여자』에 소개된 여러 편의 시를 가사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간사 이후 바로 이어지는 본지의 표제와도 같은 〈알거든 나서라〉라는 시는 굳이 채택하지 않았다. 해당 시는 “알-거든 나서라 막힘 헤치고 / 모든 준비 가지고 따라나서라 / 아름다운 새벽을 나서 맞으라 / 새 때 새 날 새 일이 함께 오도다.”라고<sup>85)</sup> 외치며, 새 시대가 왔으니 이제 준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을 여성에게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경운은 이같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부르짖는 시는 창가집의 가사에서 배제하였고, 비교적 신여자에 대한 의미 부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감상적 성격의 시들을 가사로 주로 채택했다. 이는 당시의 여성해방이나 남녀동등 인식이 근대 세계를 향한 하나의 명분으로 작동했을 뿐 실제로는 여성의 자주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반기지 않았던 남성 지식인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전체 8장 42곡으로 구성되었고,<sup>86)</sup> 아래 [표 1]은 창가집의 목차를 원본 양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85)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104.

86)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 대한 간략 정보는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EMDB, <http://emusicdb.inf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사 전문(全文)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악보는 조운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창가집의 사진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조운영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표 1]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목차<sup>87)</sup>

<p><b>第一章 曙光(서광)</b>                      一, 새겨울                      二, 새벽 들</p> <p><b>第二章 悲哀(비에)</b>                      一, 人生(인생)의 生活(생활)                      二, 生(생)의 애(애)                      三, 新婦(신부)의 서음                      四, 나의 서음                      五, 水影(수영)의 黃昏(황혼)</p> <p><b>第三章 警戒(경계)</b>                      一, 新舊(신구)의 衝突(충돌) 비극(悲劇)의 婚姻(혼인)                      二, 貞操(정조)                      三, 烈節(열절)                      四, 夫婦(부부)의 眞愛(진애)                      五, 우리의 職分(직분)                      六, 勸告歌(권고가)                      七, 勸學歌(권학가)                      八, 工夫(공부)의 바다                      九, 急急改良(급급개량)</p> <p><b>第四章 謹告(근고)</b>                      一, 舊習(구습)을 바려라                      二, 忍耐性(인내성)                      三, 故鄉兄弟(고향형제)에게                      四, 主婦(주부)의 責任(책임)                      五, 喪家僧舞老人哭(상가승무노인곡)</p>	<p><b>第五章 希望(희망)</b>                      一, 新年歌(신년가)                      二, 蘇生(소생)                      三, 落花歌(낙화가)                      四, 他鄉孤客(타향고객)                      五, 나의 所願(소원)</p> <p><b>第六章 前進(전진)</b>                      一, 봄이 옴                      二, 나서라                      三, 新女子(신여자)에게                      四, 義務(의무)                      五, 自立(자립)                      六, 少年少女(소년소녀)</p> <p><b>第七章 義節(의절)</b>                      一, 落花岩歌(낙화암가)                      二, 矗石樓景概(축석루경개)                      三, 練光亭景概歌(연광정경개)                      四, 陵母歌(릉모가)                      五, 徐母歌(서모가)                      六, 나란婦人歌(부인가)                      七, 잔썩크                      八, 잔썩크 (其二)</p> <p><b>第八章 成功(성공)</b>                      一, 卒業歌(졸업가)                      二, 答詞歌(답사가)</p>
--	--

87) 창가집을 살펴보면 목차에 제시된 제목과 악보 및 가사 전문에 제시된 제목이 사소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로 제1장 2곡은 목차에는 〈새벽들〉로, 악곡에는 〈새벽의 들〉로 표기되어 있다. [표 1]은 목차의 표기를 따라 정리한 것이며, 한자 제목에는 한글 독음을 괄호 안에 추가적으로 병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본고에서 개별 악곡을 언급할 때에는 악보와 가사 전문에 표기된 제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구성은 1장 ‘서광’에서 시작하여, 2장 ‘비애’, 3장 ‘경계’, 4장 ‘근고’, 5장 ‘희망’, 6장 ‘전진’, 7장 ‘의절’, 그리고 마지막 8장 ‘성공’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1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에 대한 기대감을 세상의 어둠을 처음으로 밝히는 새벽빛, 서광에 빚대어 노래함으로써 창가집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2장은 쓸쓸하고 적막한 감정, 혹은 슬프고 서러운 감정인 ‘비애’로 시작하지만,<sup>88)</sup> 결국 8장에서 목표하는 학업을 부지런히 마치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구성의 흐름은 식민지 시기의 암울한 분위기와 구시대적인 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창가집에 반영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비애’와 ‘성공’ 사이에 놓여 있는 ‘경계’, ‘근고’, ‘희망’, ‘전진’, ‘의절’은 청년 여자들이 20세기를 지내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 배우고 알아야 할 것,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등을 가르치는 창가집의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여성에게 임무와 각오를 당부하고 설득하려는 『이십세기청년 여자창가』는 마치 노래하는 ‘훈계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 가사 가운데 “들어보시오”와 같은 표현으로 연설적인 내용의 교훈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앞서나가세”, “활동합시다”의 권유 형태로 여성의 활동을 도모하기도 하며, “버려라” 혹은 “변치 마시오”라며 화자와 대상 간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여성을 꾸짖는 질타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 표현은 『동서위인 창가』나 『조선지리경개창가』 등에 나타나는 교술적 성격과는 다른 것이며, 또 노래 시로서 문학적인 성격을 표방하기보다는 자성, 자각의 목소리를 담

88) 제2장에서 5편의 창가를 통해 노래 되는 ‘비애’의 감정은, “압도 뒤도 다 갖은 가득한 어둠”(〈인생의 생활〉), “고해의 우름을 갖치 울다가 / 죽음에 나라로 향하는 거름”(〈생의 애〉), “한 줄기 뜨진 눈물 꽃 위에 똑똑”(〈신부의 서름〉) 등으로 표현되거나, ‘별빛 하나 없는 넓은 바다’와 ‘표준석 없는 태산’(〈나의 서름〉, 혹은 ‘여름날에 쓸쓸히 저물어 가는 해’(〈슈영의 황혼〉) 등에 비유되었다. 서정성을 선취하고 있는 이러한 창가는 노래하는 주체의 정서적 표현이자 개인의 감정적 발화로 보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적 저항 의식이나 독립에 대한 열망 등을 직접 표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상실감과 염려, 암울하고 울분에 찬 공공의 감정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아 근대의 실천을 촉구하는 언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산문이 아닌 운문 가사의 형태로 기술됨으로써 일반 언어 표현보다는 압축적이고 명료하며, 창가 선율을 통해 그 내용이 보다 효과적이고 호소력 있게 전달될 것을 겨냥하고 있다.

단선율의 창가 선율 악보는 1절 가사 위에 5선보와 숫자보가 함께 기보되어 있다.<sup>89)</sup>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수록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박자: 3/4박자의 두 곡(〈타향고객〉, 〈졸업식가〉)을 제외하고, 2/4박(13곡), 4/4박(14곡), 6/8박(13곡)이 골고루 비중 있게 사용되었다. ② 음계: 단음계를 사용하는 세 곡(〈신부의 서름〉, 〈축석루경계〉, 〈졸업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음계와 5음 음계로 구성되었다. ③ 형식구성: 대부분 4마디를 단위로 하나의 프레이즈를 구성하며(〈권고가〉만 예외적으로 3마디 단위로 프레이즈 구성), 약 30곡 이상이 한 도막(8마디)과 두 도막(16마디) 형식을 이룬다. 가장 긴 악곡은 48마디로 구성되었다(〈소년소녀〉와 〈썩썩크(2)〉). ④ 음역: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고려한 듯 전반적인 음역이 높다.<sup>90)</sup> 모든 곡이 d<sup>2</sup>음 이상의 최고음을 가지고 있으며, f<sup>2</sup>음 이상, g<sup>2</sup>, a<sup>2</sup>의 고음을 불러야 하는 악곡도 14곡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옥타브 이상의 음역에 걸쳐져 있어 일반적인 창가 음역보다 넓다. ⑤ 선율형: 4도 이상의 큰 도약 음정과 부자연스러운 임시표의 사용이 잦고, 자연스러운 아치형 선율보다는 상행과 하행이 들쭉날쭉한 형태의 노래하기 쉽지 않은 선율이 많다. ⑥ 리듬: 2/4박이나 4/4박의 악곡에는 ♩ ♩ 혹은 ♩ ♩의 부점 리듬이, 6/8박의

89) 창가집 전체 악곡에 대한 간략 정보는 조운영,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노래: 백우용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를 중심으로,” 63-70 참고.

90) 그러나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EMDB)를 통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선율들을 확인해 보면 높은 음역에서 노래하도록 쓰인 악곡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음역이 높다고 하여 여성의 음역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창가집에는 〈소년소녀〉와 같이 최고음이 b<sup>2</sup>음에 이르거나, 올림표 5개로 구성된 B 장조의 악곡이 몇 곡 수록되어 있어, 실제 노래 부를 것을 목표로 창가집을 제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악곡에는 ♪ ♪ ♪ ♪ ♪의 리듬형이 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리듬 측면을 좀 더 부연하자면, 창가 선율들에 다양한 리듬형을 사용하기보다는 특정 형태의 리듬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단순히 음악적 예술성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리듬의 반복으로 소리의 질서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생각이나 경험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부점 리듬과 같이 역동성을 갖는 리듬형은 사람들의 심상을 자극하고 고무하여, 근대 문명을 향한 사회적 이념을 소리로서 각성함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sup>91)</sup>

한편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개별 악곡의 악보에 앞서 가사 전문(全文)이 먼저 제시되어 있고, 한글 중심의 가사에는 필요에 따라 주요 단어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더욱이 가사 중에 “인의순덕”(仁義順德), “순민치덕”(順民治德) 등과 같이 뜻이 쉽지 않은 한자어 사용이 많고 문자 해독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창가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교육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훈계적인 목적과 더불어 창가 부르기를 통한 서양음악 어법 익히기 목적 외에도 한자 습득을 병행하도록 목표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판매를 위한 출판물로서 창가집의 전반적인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제목 표기에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목차와 악곡에 제시된 제목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sup>92)</sup> 가사의 쓰임에 있어서도 악보에 제시된 것과 가사 전문에 제시된 것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예로 <권고가>의 경우, 가사 전문에서 “오날 이 시운 무삼 운인가”로 제시된 1절 2행 가사는, 악보에

91) 김영철, 『한국 현대시 양식론』 (서울: 박이정, 2018), 38-39.

92) 제목이 명시된 양식을 보면, 목차 부분에서는 한자 중심으로, 악곡의 가사 전문 부분에서는 한글 중심에 한자가 병기된 형태로, 그리고 악보 부분에는 다시 한자로 표기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악곡의 제목을 제시함에 있어 부분마다 제각각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예로 제4장 4곡의 경우 목차에는 <主婦의 責任>, 가사 전문에는 <주부(主婦)의 책님(責任)>, 악보에는 <主婦>로 제시되었다. 또 제7장의 장 제목이 목차에서는 “義節”(의절)로, 본문에서는 “절의”로 표기되어 있다.

서 “오날 시운 무삼 운인가”로 ‘이’가 탈락되었다(악보 1). 반대로 <주부의 책  
 넘>에서는, 가사 전문에 “개인을 위하는 시대 안요”의 1절 2행 가사가, 악보  
 에서는 “개인을 위하는 시대 안이요”로 ‘이’가 삽입되었다.<sup>93)</sup>

[악보 1] <권고>의 첫 6마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모든 악곡 가사는 유절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  
 장 짧은 것은 2절 구성에서부터 긴 것은 10절까지 다양하지만 다수가 4절 이  
 상의 가사를 갖는다. 비교적 짧고 단순한 창가 선율에 비하면 가사는 상대적  
 으로 길고 방대한 편이다. 4·4조나 7·5조 등의 자수율을 엄격하게 지켜낸 가  
 사 선율 붙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 전문에 제시된 가사와 악보에 쓰인 가사가 서  
 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 또 분절된 가사 토막이 선율 프레임에 구문적으  
 로 들어맞지 않아 노래 부르기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6/8박자 16마디 구성의 <권학>의 경우, 각 절의 첫 번째 행은 선율 첫 네  
 마디에 음절적으로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즉 “문명(文明)의 파도(波濤)은 항  
 두(港頭)의 부딪고”의 1절 1행 가사는 3음절을 단위 어절로 하여 한 행이 4어  
 절로 구성되었고(3·3·3·3), 이는 6/8박자의 네 마디 선율과 자연스럽게 어우  
 러진다(악보 2). 하지만 2절 1행의 가사 “동아조선(東亞朝鮮) 금슈강산(錦繡江  
 山) 삼천리(三千里)에” 경우 12음절로 1절 1행과 음절 수는 동일하지만, 4음  
 절 단위의 3어절로 구성되어(4·4·4) 같은 선율에 가사를 붙이기가 모호한 면  
 이 있다.

93) 이 밖의 음악 관련 오류로 찾아지는 것은 조성 표기에 관한 것이다. 전 곡의 악보 앞머리  
 에는 “F調”, “Bb調”와 같이 악곡의 조성이 장조 단조 구분 없이 제시되어 있는데, <련광명  
 경개>의 경우 5음 음계 구성의 G조성 중심이나 악보에는 “C調”로 잘못 표기되었다.

## [악보 2] &lt;권학가&gt;의 첫 4마디



저작자는 새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창가’라는 음악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방대한 분량의 가사를 제시하면서 가사와 선율의 관계에 보다 민감하지 않았던 것은 창가의 음악적 측면보다 가사의 내용 전달에 주력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창가는 ‘가창’ 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긴 가사를 암송하기 어렵고 선율에 가사 붙이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 수록된 악곡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창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가류는 반드시 선율에 맞추어 한 목소리로 제창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인쇄된 텍스트를 보면서 소리 내어 ‘음송’(吟誦)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악곡 없이 음송 방식으로 가사를 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전달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창가집의 실용적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창가집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근대성을 인식하고 사회문화적 개념들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그 가사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 2) 여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창가집의 의미

3·1운동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근대 지식의 습득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사회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전반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교육열이 크게 높아졌고, 당시 조선인을 위한中等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3·1운동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여학생들

의 활약은 여성의 사회적 자각과 자아의식 정립, 여권신장의 변화 등을 촉구하는 데에 자극제가 되어주었고,<sup>94)</sup> 근대교육에 대한 여학생의 열망은 보통학교를 넘어 중등 과정 이상으로 향했다.<sup>95)</sup> 한편 1920년대 초 여성을 위한 교육자료의 출판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여학생/청년여자/신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 교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이다. 이에 본 창가집을 가로질러 드러나는 여성 교육의 방향성과 근대 시기 여성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① 근대 문명사회를 인식하는 방법: 남녀동등과 여성 교육의 필요성 강조, ② 청년여자/신여자를 향하여, ③ 여성의 직분/본분: 근대적 가족 형성과 현모양처론, ④ 유교 전통의 전근대적 가치의 계승: 열녀효부상, ⑤ 열전 형식을 빌려 제시된 “여자의 모범”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1) 근대 문명사회를 인식하는 방법: 남녀동등과 여성 교육의 필요성 강조

우리 반도의 문화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여자의 지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평등주의와 여자해방이라는 문제 아래에서 생긴 이유라. 그런즉 여자계에서도 남자에 대한 사업을 아니 하여서는 안되겠으므로 마땅히 떠맡아 짊어질 일이다.<sup>96)</sup>

94)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기소된 피고인 여성 가운데 약 74.6%가 25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반 정도가 학생이고 다른 반은 여교사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층이었다. 박용옥, “1920年代初 抗日婦女團體 指導層 形成과 思想,” 『역사학보』 69 (1976), 162-163.

95) 중등 과정의 여자고등보통학교로 1910년대까지 관립 2개교(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와, 사립 4개교(숙명, 진명, 이화, 호수돈)가 있었고, 1920년 이후에는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4개교(공주, 대구, 광주, 부산)와,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6개교(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정의, 배화, 누씨, 영생여고보와, 민간 지식인이 설립한 일신, 동덕여고보)가 정식으로 인가받았다. 정금선, “1920년대 조선인 지식인과 여학생의 여성 중등교육 인식,” 『청람사학』 29 (2019), 17-18.

96) “我半島文化가 日日增進함을 察라서 女子의 智識도 漸漸됨은 平等的 主義와 女子解放이라는 問題下에서 生한 所以라. 然則 女子界에서도 男子에 對한 事業을 不可不 負擔也로다.”

우리 조선도 이제는 남녀평등의 서광에 쬐웠도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남자들도 여자들을 향하여 가슴속에 가득 찬(만강) 축하의 뜻을 나타내도다. 참 우리 인류의 큰 복음이로다.<sup>97)</sup>

위 인용문은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 실린 두 편의 서문(“序”)<sup>98)</sup> 일부분으로,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남녀평등과 여자해방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창가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남녀평등과 여자의 독립을 요청하는 것은 당대를 대표하는 가장 근대적 사고이자 하나의 사회현상과 같은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독본과 수신서류도 이를 매우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초등여학독본』 ‘서언’에서는 “지금에 와서 풍습이 크게 열리고 여자의 권리가 비로소 해방을 맞았으니 남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자를 가르치는 것이 더욱 급하다.”<sup>99)</sup> 했고, 『부유독습』을 시작하는 글에서는 “대저 천지만물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남녀가 일반인데 어찌하여 남자만 학문을 공부하고 여자는 학문을 모르리오. 우리나라 여자들을 구미 각국 여자와 비교하면 영혼 육신이 있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부끄럽다.”<sup>100)</sup> 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남녀 사이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계몽기부터 이어진 남녀동등론은 그것이 구현된 실체가 어떤 것인지 모호했던 상황에서 시대를 인식하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변곡점으로서 의미는 크다고 할

97) “우리 朝鮮도 이제는 男女平等의 曙光에 쬐웠도다 그럼으로 우리 갓흔 男子들도 女子들을 向하여 滿腔의 實意를 囑하도다 참 우리 人類의 큰 福音이로다.”

98) 두 편의 서문 가운데 먼저 글의 저자는 ‘죽일당식(竹一堂識)’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나중 글의 저자는 산운 장도빈(汕耘 張道斌, 1888-1963)으로, 언론인이자 국사학자였던 그는 1919년 『동아일보』의 발간을 출원하였고 한성도서주식회사를 허가받아 잡지 『서울』, 『학생계』, 『조선지광(朝鮮之光)』 등을 발간하였다. 두 편의 서문은 한자어 중심으로 쓰였으나 가독성을 위해 본고에는 이를 윤색하여 실었으며 각주에 그 원문을 제시해두었다.

99)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181-182.

100) 강화석 (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15.

수 있으며 동시에 근대적 여자교육을 위한 핵심 논제가 되어준 것이다. 남녀 평등을 이루어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자교육을 통한 것이라 입을 모았다.

남녀 구분 없이 배워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창가 〈신구(新舊)의 충돌(衝突) 비극(悲劇)의 혼인(婚姻)〉에서도 잘 드러난다.

[1절]

이십세기(二十世紀) 오날 시대(時代) 신구합동(新舊合同) 못 되리라  
가련(可憐)하다 지식(知識) 업는 암매녀자(暗昧女子) 장래(將來) 길이  
문명(文明) 아래 함원(含怨) 되어 나뉘 업는 꽃과 갖치  
일생녕욕(一生榮辱) 부운중(浮雲中)에 함원허송(含怨虐送) 되리로다

[5절]

동아조선(東亞朝鮮) 반도강산(半島江山) 이십세기(二十世紀) 신문명(新文明)이  
산(山)을 넘고 물을 건너 빗친 지가 오랜지라  
남녀분별(男女分別) 등분(等分) 업시 문명교육(文明教育) 힘을 쓰면  
장래(將來)길에 충돌(衝突) 업시 안락진행(安樂進行) 하리로다

위의 창가는 옛것과 새것 사이의 갈등을 비극적인 혼인에 빗대어 쓴 것으로,<sup>101)</sup> 배움과 지식이 없어 사리에 어두웠던 암매녀자를 남녀 구분하지 않고 문명교육에 힘쓰도록 하면 장차 큰 충돌 없이 이십 세기 신문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노래하고 있다. 특히 1절에서 나뉘 없는 꽃과 같이 원한을 품어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함원허송”) 암매녀자는 구시대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사는 중국에 구시대적인 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취하여 신문명으로 나아가갈 것을 강조하였다.

신구를 철저히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은 〈급급개량(急急改良)〉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101) 이는 당시 여러 매체에서 종종 발견되는 표현이다. 예로 『여자계』 제2호(1918)에는 “신구 충돌의 비극”이, 『신여자』 창간호(1920)에는 “신구충돌의 대비극, 혼인애화 희생된 처녀”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1절]

사천년래(四千年來) 우리 녀자(女子) 암매(暗昧)한 마음  
오백년래(五百年來) 우리 사회(社會) 나타(懶惰)한 습관(習慣)  
신선(新鮮)한 문명시대(文明時代)에 타파(打破)하고서  
유신(維新)하든 이 시대(時代)에 활동(活動)합세다

[4절]

신(新)—선(鮮)한 공기(空氣)의— 새로운 문화(文化)  
소(消)—극덕(極的) 사(思)—상(想)을 타파(打破)하고서  
덕(積)—극덕(極的) 사(思)—상(想)을 오즉 발(發)하야  
구습(舊習)의 폐풍(弊風)을 급(急)히 곳치라

1절에서 화자는 지난 오랜 과거 동안 우리 여자들의 어리석었던 마음과 나태한 습관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이 고쳐 문명시대에 활동하고자 권고하였다. 또 4절 마지막 행에서는 새 시대를 맞아 폐해 많은 오래된 풍습을 하루빨리 고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창가는 전통사회를 암매한 것, 나타한 것, 타파해야 할 것, 소극적인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반면, 문명사회는 신선한 것, 새로운 것, 적극적인 것, 취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과거를 단절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전통사회와 문명사회를 구분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인 것이다. 한편 창가의 제목에서 여성의 문명화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개량’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하나의 슬로건처럼 사용되던 ‘개조’라는 단어가 아닌 ‘개량’을 사용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의식적이고 추상적 개념 대신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단어를 적용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에 위계적 차이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년여자/신여자를 향하여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저작자는 일부 가사들에서 신여자 혹은 청년여

자를 직접 호명함으로 그 존재를 부각하곤 했다. 아래 창가는 <신여자(新女子)에게>의 일부이다.

[5절]

새벽 빛은 오도다 우리 갈 길에  
신녀자야 그대는 새벽중 치라  
배달터에 잠자는 형제 깨이려  
나는 소래 치리라 크게 힘 있게

[6절]

아지 못한 큰 길이 새로 열니고  
동편 하날 찬란히 빛이 나도다  
손목 잡고 갑시다 거름 갖치 해  
새 빛 썬니 빛나는 이상향(理想嚮)으로

이 가사에서 화자는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 동이 틀 때 새벽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 잠자던 형제들을 깨우고 크게 소리내며 새벽종을 쳐야하는 사람이 바로 신여자라고 노래한다. 또한 향후 미래에 펼쳐질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찬란히 빛이 날테니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고 요청한다. 새벽빛이 비치기 전 바람 불고 어두운 밤은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새 빛 빛나는 이상향은 문명사회를 상징하며, 그곳을 향해 인도해줄 것을 신여자에게 바라고 있다. 이는 신여자가 새로운 시대의 상징적 존재로서 사회 전면에 드러난 관심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며, 그들에게 거는 기대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기대를 받고있는 신여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참고 견디는 마음인 ‘인내심’이다. 작자는 <인내성(忍耐性)>에서 신여자를 ‘청년 여자’로 바꿔 불러내며 “우리 청년(靑年) 여자(女子)들아 [...] 자포자기(自拋自棄) 하지 마소 [...] 지성(至誠)이면 감턴(感天)이라 마음 닥고 정신(精神) 차려 오날부터 힘써보세”라고 권면했다. 마음을 닦는 것은 곧 ‘수신’을 의미하며, 이는 청년 담론에서 수신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지식을 함양할 것을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학문에 힘쓸 것을 권하는 <권학가(勸學歌)>에서도 “사회(社會)를 유지(維支)키는 우리 여자(女子) / 열심(熱心)을 분발(奮發)하야 나아갈지라 / 우—리의 마음은 변동(變動)이 업시 도덕(道德)과 지식(智識)를 힘쓸지로다(4절)”라며 수신 차원의 여성 교육을 강조했다.

신여자의 학업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학생의 존재를 인식한 듯 〈나의 소원(所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2절]	[3절]	[4절]
일생(一生) 나의 생각(生覺)한 맘 편골분육(片骨分肉) 될지라도 립신양명(立身揚名) 하재더니 세국력진(勢窮力盡) 되단 말가	설한북풍(雪寒北風) 참담(慘憺)한대 상등객선(上等客船) 몸을 실어 가주대양(加洲大洋) 건너가니 상강립동(霜降立冬) 지내도다	되도록은 학업(學業) 닦가 단단하고 강한 결심(結心) 말한 목덕 성공(成功)하면 가이 귀향(歸鄉)하겠도다

이 가사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화자인 내가 항상 생각하기를 빼와 살이 부서져도(“편골분육”)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치자 했었는데(“립신양명”) 벌써 기세가 꺾여 힘이 빠져버렸단 말인가(“세국력진”), 눈 오고 바람 부는 겨울에 여객선을 타고 미국 캘리포니아(“가주대양”)로 건너와 상강입동을 지내고 있으니,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학업을 열심히 닦아 말한 목적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라 노래하고 있다. 즉 화자에게 있어 ‘성공’은 힘든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공’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독본류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용어로, 개인적인 수양의 궁극적 목표가 ‘성공한 삶’을 지향하면서 지식인들의 상투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대개 청년 담론에서 논해지는 성공은 내적 개조를 통해 품성, 지식, 의지를 요소로 하는 인격적 성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sup>102)</sup> 하지만 〈나의 소원〉에서 볼 수 있듯이,

102) 1922년 4월 7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청년과 성공”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저자는 “오인(吾人은 현대 청년의 가장 병폐가 되며 현혹이 되는 성공이라는 관념을 정확히 하여 일반의 참고를 작(作)코저 하노라. 대개 성공이라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스니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공이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성공이라. 품성의 고결, 지식의 해박, 의지의 용감이 완전한 자격을 성(成)해야 하처(何處)에 입(立)하든지, 하사(何事)에 대하든지 자신한 바 유하며 자각한 바 잇서 개성(個性)으로 충분히 천분을 발휘하는 것은 전자를 의미함이요, 재전(財錢)의 풍부, 영작(榮爵)의 고귀, 절대(絶對)의 미인을 가져 이 사회 모든 총애, 모든 행복을 일신에 집주(集注)하여 선양(羨仰)의 표적이 되는 것은 후자를 의미함이라.”고 썼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작자는 청년여자에게 있어 ‘성공’은 학업을 무사히 마치는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가집의 구성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졸업가’와 ‘답사가’로 구성된 창가집의 마지막 장 제목이 ‘성공’인 것은, 여자의 배움에 결실을 ‘성공’으로 치하하면서도, 여자의 ‘성공’을 학교 졸업 정도에서 한정 지으며 그 이상의 지식이나 품성 도야 혹은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작자는 청년여자/신여자를 향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새로운 길을 내딛는 여자들에게 인내심이나 학업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했지만, 그들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권고가(勸告歌)>는 청년여자의 새로운 세태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당시의 경향을 보여준다.

[1절]

반도강산(半島江山) 청년녀자(靑年女子)야  
 오늘 이 시운(時運) 무삼 운(運)인가  
 전진(前進)하는 경쟁장(競爭場)이오  
 이십세기(二十世紀) 활동시대(活動時代)라

[7절]

우리 반도(半島) 조선녀자(朝鮮女子)들  
 분수(分數) 맞게 동등(同等) 구(求)하기  
 사치장식(奢侈粧飾) 몸을 썩이여  
 사치개화(奢侈改化)로 동등(同等) 구(求)하네

[2절]

반도(半島) 우리 녀자계군(女子諸君)아  
 오늘 이 시운(時運) 무삼 운(運)인가  
 남녀동등(男女同等) 급(急)지 아느냐  
 수신문학(修身文學) 힘쓸 운(運)이라

[8절]

사시머리와 뒤 놓흔 구쓰  
 절대덕 문명 대표 아니니  
 우리 녀자 한갓 힘쓸 것  
 문명 수신 슈덕뿐이라

화자는 1절과 2절에서 오늘날 청년여자가 활동하는 시대이지만 남녀동등 급하지 않으니 수신에 먼저 힘쓰라고 훈계한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오늘날 우리 여자들이 분수에 맞게 동등을 구하기보다는 사시머리와 굽높은

다. 저자는 당시에 남발하여 사용되던 성공의 의미를 인격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으로 구분했는데, 재물, 영예, 총애 등을 가져 사회의 부러움 대상이 되는 사회적 성공보다 고결한 품성, 해박한 지식, 용감한 의지를 통해 개성을 강조하는 인격적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논했다.

구두로 몸을 장식하고 꾸며서, 즉 사치함으로 개화를 구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가사에서 언급된 ‘사시머리’는 서양 부인의 머리모양을 본떠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후 한국으로 전해진 뺨머리 스타일로, 앞과 옆머리를 둥글고 풍성하게 부풀린 후 정수리에 틀어 올린 히사시가미(庇髮)를 뜻한다. 이 머리 스타일은 1910년대부터 신식 문물을 받아들인 여성들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1930년대에 단발이 유행하기 전까지 여학생들에게서 유행했다.<sup>103)</sup> 아래 사진은 신여성의 대표 아이콘이라 할 수 있었던 이화학당 대학과 학생들의 사진으로 주로 뺨머리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104)</sup>

[그림 1] 뺨머리를 한 이화학당 대학과 학생들



‘뒤 높은 구두’ 또한 신여성의 필수 아이템으로, 고무신을 벗어 던지고 구두를 신었던 것은 여성 활동성의 변화와 여성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103)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27.

104) 사진의 출처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사이버 전시실,”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5614413&siteId=archives&dum=dum&boardId=5642956&page=2&command=view&boardSeq=5930409&year=2025&month=1&startDate=&endDate>, 검색일: 2024. 10. 1.

도 한다. 게다가 굽이 높은 구두는 머리 꼭대기에 한껏 부풀려 올린 뺨머리와 함께 시각적으로 수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유행을 따르려 한 것이기보다는 이전 전통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 지위의 향상을 바랐던 여성의 기대감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변화를 바라보던 당시 지식인 사회는 여성에 대한 낮은 감정과 불편함을 사치와 허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문제시하고 비난했다. 대표적으로 자산 안확(自山 安廓, 1886~1946)은 그의 『개조론』에서 “여성문제”를 논하며 여성의 사치와 허영을 지적한 바 있다.<sup>105)</sup>

조선에서도 여자를 나이 어린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속박과 압제를 매우 심하더니 근래에 이르러서야 여자의 인격을 인정하여 교육도 베풀고 대우도 상당히 개선하는 등 해방의 정치를 행하게 되었다. [...] (그러나) 조선의 여자교육은 갑자기 일어난 까닭에 나라의 정도와 맞지 않아 여러 종류의 폐해가 나타났다. 첫째, 가사교육이 부족하여 결혼 후에 집안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시대적 생활을 알지 못하므로 구미 여성의 흉내만 내고자 하여 사치 생활의 허영심만 가득하다. [...] 이러한 폐단으로부터 불량한 비영이 생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sup>106)</sup>

안확은 당시 여자교육이 조선의 상황에 맞지 않게 갑자기 늘어난 고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서양 여성의 외양을

105) 자산 안확(自山 安廓, 1886~1946)의 『개조론』은 『자각론』(1920, 1921, 회동서관, 조선청년회연합회, 한일서점)과 함께 1920년대 초 청년 담론의 논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청년 계몽서로 여겨진다. 안확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역사, 철학, 문학, 어학, 음악, 미술, 시문 등 다방면에 걸쳐 약 140여 편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긴 계몽운동가이자 국학 연구의 대표 학자이다. 그의 『자각론』과 『개조론』은 1920년대 그의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특히 『개조론』에서 그는 당대를 진보를 위한 개조의 시기로 인식하고 조선과 세계의 개조 중심에 노동계급과 인종문제 그리고 여성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철저한 기회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논했다.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안동: 성심, 2003), 66-67.

106)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 117-118.

흥내만 내던 데에서 비롯된 조선 여성들의 사치와 허영이라고 했다. <권고>의 화자는 여성의 변화된 세태에 대한 안확의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머리 장식과 구두 등에 소비가 많음을 비판하면서 여성을 소비의 주체로 인식했다.

### (3) 여성의 직분/본분: 근대적 가족 형성과 현모양처론

'직분'이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의미하며 도리나 이치보다는 의무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시기 여성용 교재들에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의무를 언급하면서 '직분' 혹은 '본분'이란 단어가 흔히 사용되곤 한다. 이는 여성 교육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 역할의 수행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우리의 직분(職分)>에서 여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 [3절]

산(山) 갓흔 부모봉양(父母奉養) 우리의 책념(責任)  
 어린 자제(子弟) 교육성심(教育誠心) 오직 가명학(家庭學)  
 사회(社會)를 유지(維持)함은 우리의 책념(責任)  
 남편(男便)을 공경(恭敬)함도 우리의 책념(責任)

#### [4절]

이상(以上)의 책념(責任)은 우리의 책념(責任)  
 일호(一毫)도 게을리 못 하리로다  
 우리의 사업(事業)을 충실(充實)히 하면  
 가급(家給)의 인족(人足)을 할 것이로다

화자는 3절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어린 자녀를 교육하며,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책임이라고 노래하면서 여성의 가정생활 범주 내 직분 수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책임감 있게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곧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고 여성 역할에 대한 대의명분을 마련해두었다. 4절에서는 책임을 다함에 있어 게으르지 말고 충실히 하면 결국 '가급인족'(家給人)을

분) 즉,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은 풍족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는 가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온전히 여성에게 책임이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여성의 직분 가운데 ‘부모봉양’은 전통적인 ‘효’ 개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3절 2행에서 어린 자녀를 성심을 다해 교육할 것은 근래에 이르러 변화된 가정 내 여성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사람됨을 가르치는 자녀교육은 본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성인 남성의 권한이었고,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양육자로서의 역할로 규정되었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어머니 역할은 자녀 양육을 넘어 교육까지 확장되었고, 근대 시기 새로이 등장한 ‘가정학’은 자녀교육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배움과 지식의 범주가 대개 자녀교육과 관련한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근대적 지식 교육을 통해 지혜를 갖춘 현명한 어머니, 즉 ‘현모’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강조된다.

시의 3절 4행은 남편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인데 이 또한 근대에 변화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 가족 개념이 부계 혈족을 따라 수직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일가가 형성되는 ‘가문’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근대 가족은 부부를 가족 관계의 중심에 두고 좋은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남편을 공경하는 어진 아내, 즉 ‘양처’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현모양처’는 여성의 직분이자 부인이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인식되었고, 현모양처가 되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여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즉 부도(婦道)가 되었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전체에서 작자는 ‘현모양처’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그가 내세운 여성의 규범과 여성의 직분/본분은 명확하게 ‘현모양처상’에 부합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 시기 여성의 역할은 ‘가족’ 개념과 가정 내에서의 역할로 한정되었고, 가족 내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가정 유지를 위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한편 안확은 『자각론』에서 “가족의 새로운 도덕”을 논하며 부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족은 곧 사회 조직의 단위이니 만일 가족이 없으면 다른 사회는 모두 소멸한다. 나와 남의 융합 상태가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니 자기를 사랑하는 동시에 가족 일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 활동하는 동시에 공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 첫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자신의 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완전히 동등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생리상 사회상 분업이 있을 뿐이요 그 사이에 어떠한 준비의 구별을 두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관념에 따라 남자는 목적이고 여자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새로운 도덕에서는 불허하는 바이다. [...] 그런즉 결혼은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니 각기 목적으로써 서로를 존경하며 이를 통해 각기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한다.<sup>107)</sup>

안확은 과거의 남존여비 실태에 대해 비판하고 남녀 모두에게 가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남녀 부부 사이에 주어진 임무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준비의 구별 없이 서로 존경하며 완전하게 동등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명분만 제시할 뿐 부부 사이에 완전한 동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또한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결혼을 통해 각기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여성에게도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가 생각하는 여성의 인격 실현은 무엇인지, 여성의 인격과 남성의 인격이 과연 동등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더욱이 안확은 같은 책에서 “인생의 본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기의 목적은 자기 존재의 목적이다. 자기가 세상에 생겨난 것은 결코 남을 위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고 남의 명에 따라 생겨난 것도 아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 법칙에 굴종하지 않고 자주 자치 자유를 의지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자기에 의거하여 행위를 결정하며 자기에 의하여 사물을 선택하니 이것이 곧 사람의 천직인 것이다.<sup>108)</sup>

107)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 44-46.

108)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 36.

라고 하며, 인간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명에 따라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오직 자신의 의지에 의거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임무요, 본분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개조론』에서,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여 자유를 부여하고 이로써 세상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 이상이다. 즉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인격을 발휘하고 남녀 상호의 부조(扶助, 남을 거들어 도와줌)로써 사회나 국가를 향상 전진시켜야 한다. [중략] 여자교육의 정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그 남자의 능력도 남녀 동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의 남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열등한 여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남자도 열등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sup>109)</sup>

라고 했다. 상위 두 인용문에서 남녀 사이의 동등함과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됨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는 마지막 인용문에서 여성의 인격을 남을 위한 희생으로 규정하고, 여성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옳은 길은 남성을 돕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논했다. 또 남녀동등에 입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 교육도 결국엔 남자가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의무(義務)〉에서 다시 한번 가정생활 범주 내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였다.

[2절]

사람다운 새 살림에 집안을 살녀  
 내 남편(男便)을 경력(叮嚀) 잇난 일꾼 맨들고  
 새 지식(智識)을 만이 어더 육아(育兒)에 힘써  
 동포(同抱) 위(爲)해 일 잘할— 국민(國民) 맨들미  
 집에 잇난 국민(國民)의— 할 일이—로다

109)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 120.

2절에서 화자는 근대의 가정학에 근거한, 전통과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사람다운 새 살림”이라 표현하였고, 2행과 3행에서 근대 여성의 규범이 되는 양처와 현모의 모습을 각각 노래했다. 그러나 이 창가에서 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근대 시기에 정립된 가정과 국가와의 관계성이다. 화자는 이 창가에서 여성에게 가정생활 내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노래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가족 범주 내로 제한시키는 동시에 남편과 자녀(아들)를 국민으로 양성해 내는 것이 근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이자 여성이 국민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라 강조했다. 일가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며 이는 곧 사회와 국가로 연결되어, 결국 현모양처상은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명분 아래 의도적으로 규격화된 여성상임을 보여준다. 여성과 국가 간의 접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면서도, 근대 가족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사회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낸다. 가족-국가 간에 새롭게 재편된 질서 안에서 현모양처상은 여성이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서 ‘국가’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문데, 〈부부(夫婦)의 진애(眞愛)〉라는 곡에서 “일개(一箇)의 가명(家庭)은 국가(國家)와 일반(一般)”이라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 번 사용된 정도이다. 이는 식민 상황에서 ‘국가’를 논하기가 난감하거나 또 교과서 발행 금지 등을 의식하여 전략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신 저작자는 ‘국가’보다 ‘사회’로 완화하여 가정이 사회의 기초됨을 역설하였는데, 이 같은 경향은 〈주부(主婦)의 책임(責任)〉에서 잘 드러난다.

[1절]

사회(社會)를 주창(主唱)하는 금일시대(今日時代)는  
 개인(個人)을 위(爲)하는 시대(時代) 안요  
 사회(社會)를 위(爲)하여 생활(生活)하고  
 사회(社會)를 위(爲)하여 사망(死亡)하노나

[2절]

사회(社會)의 기초(基礎)가 어대에 있나  
일가(一家)에 가명(家庭)으로 기초(基礎)가 되고  
가명(家庭)을 유지(維支)함은 뉘게 잇난뇨  
책임(責任) 중(重)한 주부(主婦) 오즉 한아라

[5절]

가내(家內)의 위생(衛生)을 게을니하여  
질병(疾病)과 손해(損害)을 생기(生起)게 하고  
재산(財産)을 남용(濫用)하고 빈한(貧寒)하면  
자제(子弟)의 교육(教育)은 어이(於以) 및치라

이 창가는 여성에게 사회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책임이 여성/주부에게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즉 가정 내의 일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임무이며, 여성은 가사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가정의 운영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근대 가정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5절에서 주부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정교육 담당자로서 주부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정운영자로서 근대적 위생과 근검절약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측면과 위생적인 측면의 개선은 근대 시기에 변화된 생활 규범이자 여성에게 새롭게 부과된 영역의 임무로, 생활 개선을 통해 가정의 근대화를 추구할 것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사적 영역인 가정 내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근대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가정 내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가정 내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공고히 했다.

(4) 유교 전통의 전근대적 가치의 계승: 열녀효부상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20세기 조선의 근대적인 변화상을 인식하고 근대 문명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규범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변화한 세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 시대의 덕목을 이어가려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유교 전통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중 여성과 관련 덕목은 전통적 행동 양식을 재생산하며 조선 고유의 가치인 것처럼 미화되기도 한다. 근대사회가 과거와의 단절을 추구하고, 전통과 문명을 구분 짓고 위계화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와 전통 간의 내적 연관성은 여성문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여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 견해를 견지하며 전근대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인 가족 질서가 재편되고 현모양처가 여성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 이전, 전통사회에서 요구된 대표적인 여성상은 ‘열녀효부’(烈女孝婦)로 집약될 수 있다. ‘절개가 굳고 정절을 지키는 여자’와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는 근대에 이르러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전근대적 여성의 전형이다.

시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것은 유교 사회의 중심 원리이자 전통적인 효 사상의 핵심 덕목이다. 창가 <상가승무노인곡(喪家僧舞老人哭)>은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족주의를 잘 보여주며, 특히 효 이념을 실천하는 며느리 ‘효부’를 여성의 미덕으로 칭송하였다.

## [1절]

오륜(五倫)을 밝히고 삼강(三綱)을 셈은  
우리 인류계(人類界)의 으뜸이로다  
자손(子孫)된 재(者) 부모(父母)를 경봉(敬奉)할게오  
부모(父母)는 자손(子孫)을 친애(親愛)할지라

## [2절]

성종시(成宗時) 남산하(南山下) 적은 초옥(草屋) 집  
어머니와 아들 자부(子婦) 세 사람  
가세(家勢)는 빈한(貧寒)하야 생계난(生計難)이니  
오륜(五倫)을 도아주는 화합(和合)뿐이라

## [3절]

하로는 성종(成宗)에서 순찰(巡察) 하실새  
우연(偶然)이 이 집을 당도(當到)하시니  
상인(喪人)은 노래하고 녀승(女僧) 춤 추며  
노인(老人)은 슬픔으로 통곡(痛哭)하노나

## [4절]

제군(諸君)은 이 뜻을 임의 아셨나  
나—의 한 말을 드려보시오  
인생(人生)의 귀(貴)한 거시 두발(頭髮)되는 중(中)  
부녀(婦女)는 두발(頭髮)이 생명(生命) 갖도다

[5절]

이 낱은 자기시모(自己媿母) 회갑(回甲) 당(當)하니  
적수(赤手) 공권(空拳)의 빈 주먹이라  
생각(生覺)을 하고보 회갑(回甲)이란 것  
사람의 중생(重生)함과 갖치 귀(貴)하다

[7절]

이 부녀(婦女) 조금도 애연(哀然)함 업고  
도로혀 즐거움 잊지 못하야  
상인(喪人)된 자기남편(自己男便) 축수가(祝壽歌)하고  
효봉(孝奉)스런 자기(自己)는 춤을 추었네

[6절]

다—판 편시모(片媿母) 회갑(回甲) 당(當)하야  
귀중(貴重)이 녀이는 자기(自己) 머리를  
자기(自己)가 깎까서 저자에 팔아  
그 시모(媿母) 회갑(回甲) 잔채 배설(排設)하였네

[8절]

이 일을 생각(生覺)하는 자기시모(自己媿母)는  
가세(家勢)의 빈곤(貧困)함과 자부효성(子婦孝誠)을  
도로혀 생각(生覺)하니 슬픈 회포(懷抱)가  
남 모른 가온대 통곡(痛哭) 되었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의 이 창가는 ‘상중에 여승은 춤추고 노인은 통곡한다’로 풀이되는 〈상가승무노인곡〉을 제목으로,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젊은 부부가 어렵게 어머니의 환갑상을 마련하며 벌어지는, 당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sup>110)</sup> 성종 임금이 마을을 순찰하던 중 어느 집에서 아들이 노래하고 머리털 없는 여승은 춤추며 그 옆 노인이 통곡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날은 어머니의 회갑 날로 살림이 너무 가난했던 며느리는 자기 귀중한 머리털을 깎아 판 돈으로 시어머니의 잔치상을 차렸고, 이 며느리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효를 받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유교 전통의 핵심 개념인 효를 바탕으로,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신분인 며느리를 강조하며, 여성 정체성의 중심을 ‘효부’로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유교 전통의 가치는 근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서 ‘효부’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전통적 여성상은 ‘열녀’상으로, 〈정조(貞操)〉, 〈렬절(烈節)〉, 〈부부(夫婦)의 진애(眞愛)〉 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작자는 〈정조〉 1절에서 “이십세기(二十世紀) 문명(文明)의 신녀자제씨(新女子諸氏) / 극동방(極東方)의 예의(禮義)는 오즉

110) “상가승무노인곡,” <https://ncms.nculture.org/ceremonial/story/1597>, 검색일: 2024. 9. 30.

조선(朝鮮)뿐 / 사천년(四千年)의 긴 력사(歷史) 멸(滅)함이 업고 / 부인계(婦人界)의 정조(貞操)는 변(變)치 안았네”라고 노래하며, 세상이 바뀌어도 여자의 끈은 절개인 ‘정조’는 여전히 중요하니 정조의 뜻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한 여성의 정조는 조선의 고유한 “예의”로서 근대 사회에 지켜야할 조선의 미덕임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정조 관념은 <렬절>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 [1절]

평(平)—생(生) 녁욕(榮辱)과 일생고락(一生苦樂)이  
모도 다 장부(丈夫)에게 달렸도다  
남자는 부녀(夫女)를 사랑할게오  
부녀(婦女)는 장부(丈夫)를 공경(恭敬)합시다

## [3절]

차(嗟)호—나다 현대(現代) 우리 여자계(女子界)  
남편(男便)의 부족(不足)함과 가세(家勢) 탓으로  
리혼(離婚)을 부르짓는 그들 장래(將來)가  
온전히 세상(世上)의 유지(維持)하리오

## [5절]

권(勸)하노니 반도(半島)에 우리 여자(女子)여  
오륜(五倫)의 큰 뜻을 깊이 생각(生覺)해  
동방(東方)의 예의(禮義)를 쓰치지 말고  
우리의 슈신(修身)을 닦아봅시다

‘렬절’ (烈節)은 절개가 끈은 여자인 ‘열녀’ (烈女)의 정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교 전통의 계보 안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최고의 가치이다. 또한 ‘열’ (烈)의 대상은 대개 부부관계를 전제로 남편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는 남편에게 속한 여성의 성적 종속성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sup>111)</sup> 특히 화자는 ‘삼강오륜’에 입각하여 부부 사이의 도리를 더욱 강요하였는데, 1절에서 여자의 일생은

111)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16.

모두 장부에게 달렸으니 서로 간에 충실 하라고 요청한 것은 삼강 가운데 ‘부위부강’(夫爲婦綱)과 맥을 같이 한다. ‘부위부강’은 남편은 부인의 버리, 즉 근본이 되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할 것이요, 남편은 부인을 감싸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근본임을 뜻한다. 또 5절에서는 ‘오륜’을 직접 언급했는데, 남녀관계에서 강조되는 오륜의 덕목은 ‘부부유별’(夫婦有別)로,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지만 역할이 각자 다르니 서로 침범하지 말 것을 이른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단순한 역할 구분이기보다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수직적 위계를 설정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속박했던 것의 근거가 되었다.<sup>112)</sup> 이러한 삼강오륜을 따른 덕목은 앞에서 살펴본 〈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방의 예의”로 재차 강조되며 조선의 고유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미화되었으며, 삼강오륜의 성차별적 요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근대 여성 교재들에 그대로 수용되곤 했다.

한편, 정조, 절개, 정절 등을 중시했던 화자는 3절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반(反)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여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이혼은 여성만의 단독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조 관념의 연장선에서 여성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근대에 이르러 조혼(早婚)이 금지되고, 여성의 개가(改嫁)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여성의 만혼(晩婚)과 이혼이 당시 여성의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부터 여성의 이혼 소송 제기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은 심각한 사회문제, 여성문제로 거론되었다.<sup>113)</sup> 이혼을 여성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보는 경향은 일부 진보적인 신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식,

112) 부부 사이의 수직적 위계는 〈부부의 진애〉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절에서 “일개(一個)의 가정(家庭)은 국가(國家)와 일반(一般) / 부부(夫婦)의 가림이 군신(君臣)과 일반(一般) / 군주(君主)는 신하를 택(擇)할 것이요 / 신하는 군주(君主)를 삼갈 거시라”며, 부부 관계를 군주와 신하와 같은 관계로 보고 아내에게 남편을 군주 삼기듯하라고 강요하였다.

113) 김순전 외, 『제국의 식민지 수신』 (서울: 제이앤씨, 2008), 432.

주체적 성 관념, 자유연애 사상 등에 대해 반감을 표한 사회적 반응으로 이해되기도 한다.<sup>114)</sup>

### (5) 열전 형식을 빌려 제시된 “여자의 모범”

1920년대 초 여성 담론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으로 제작된 여학교 교육 교재는 거의 전무 했던 상황에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가 여성을 위한 교육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되었다는 것은 두 편의 서문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 자매가 근래 구매하는 책자가 이름이 난 여진 사람,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을 기록함에 불과하고, 고대부터 전해지는 열녀와 오늘날 이르는 숙녀의 역사적 기록은 전혀 없음이 매우 큰 섭섭함을 남기니라. 그러므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역사를 공 들여 모아 자매의 사모(스승)로 삼고 모범으로 삼을만하도록 그 요점을 취하여 창가 한 권을 만든바 여자계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지침인 고로<sup>115)</sup>

그런데 요사이 여자계의 읽을 거리로 세상에 나온 것이 대개 매우 드물기때문에 남은 것은 심히 의구하였고, 예부터 지금까지의 열녀(烈女) 걸부(傑婦)와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업적을 일으켜 우리 자매에게 알리는 자 몹시 드물어 우리는 [이들] 매우 유감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 『이

114) 진보적인 연애관을 가진 일부 여성들은 결혼과 상관없이 사랑에 자유롭길 원했고, 유부남과의 연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조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의지 표명이었으나 당시 사회는 그들을 성적으로 방탕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연애나 이혼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나혜석(1896~1948)과 김일엽(1896~1971), 박인덕(1896~1980) 등이 있다. 유진일, “탕녀들의 행진,”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19.

115) “然이나 我姊妹의 近日 購買하는 冊子가 名賢達士의 所錄함에 不過하고 古代로 傳來하는 烈女及淑女의 史記는 全無함이 一大遺憾者也라 故로 余가 自 | 古代로 至于近世까지 有名한 歷史를 苦心 蒐集하여 姊妹의 師母를 삼고 模範을 作할 만하도록 其要點을 取하여 唱歌一篇을 成한 바 女子界에 不可無할 惟一無二의 指針인 故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라는 책이 갖추어졌으니 그 내용은 대개 여자의 모범이 될 만한 부인들의 전기를 추려서 쓴 것이라 하도다.<sup>116)</sup>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일차적인 목표는 당대의 여자계에 모범이 되는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창가집의 전체 구성과 사뭇 차이를 보이니, 서문에서 언급해둔 “모범이 될 만한 부인들의 전기”는 창가집의 제7장 “절의”(節義)에서 구현되었다.<sup>117)</sup> 그리하여 7장은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제작 목표에 따른 핵심 장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 중국, 서양 여성을 노래하는 8곡, 즉 1. 락화암가(落花岩歌), 2. 축석루경개(矗石樓景概), 3. 련광명경개(練光亭景概歌), 4.릉모가(陵母歌), 5. 서모가(徐母歌), 6. 라란 부인가(婦人歌), 7. 썬썬크(其一), 8. 썬썬크(其二)으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 저자는 권면할만한 여성들의 일대 행적을 서술하여 ‘전기’(傳記) 형태로, 즉 여러 사람의 전기를 벌여서 기록한 ‘열전’(列傳) 형식으로 여성 인물을 제시하리라 언급하고 있다. ‘열전’은 당시 근대 교육 교재들뿐만 아니라 ‘보감류’ 같은 전통적인 훈계서,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했던 글 형태이며,<sup>118)</sup> 대개 위인들의 행적을 이야기로 풀어서 ‘예화’ 방식으로 서술하고 교훈 전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범이 되는 인물의 업적뿐만 아니라 굳은 의지, 인내심, 극기 등 개인의 성품을 함께 읽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도록 목표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창가집의 인물 열거 방식과 그 내용은 엄밀히 말해 ‘열전’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가집에 제시된 내용은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예화를 통해 교훈적 면모를 전달하기보다는, 인물의 행적을 보다 감상적

116) “그런데 近日 女子界의 讀物로 出世하는 바가 대개 寥寥함으로 余輩는 甚히 疑懼하였고 더  
욱 古來의 烈女傑婦와 賢母良妻의 事蹟을 擧하여 우리 姊妹에게 示하는 者 | 甚稀함으로  
余輩는 매우 遺憾으로 認하였더니 이제 二十世紀 青年女子唱歌라는 書가 成하였스매 그  
內容은 대개 女子의 模範될 만한 婦人들의 傳記를 縮圖로 한 것이라 하도다”

117) “절의”는 본문에서 제시된 장 제목이고, 목차에서는 “義節”(의절)로 표기되어 있다.

118)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서울: 소명출판, 2004), 28-30.

인 언어로 표상하고 기억하며 칭송하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창가’를 위한 가사로서 산문이 아닌 운문 형태로 압축되어야 했을 필요와, 사실 기록이나 전달의 목적보다는 가창을 통해 인물에 대한 심정적, 감정적인 동조를 불러일으키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의 성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또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모범이 되는 여성 인물을 나열해두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열전’의 형식과 목적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한국 여성 관련 3곡, 중국 2곡, 서양 3곡의 창가를 수록하고 있는데, 창가에서 노래 되는 여성들은 모두 ‘절의’의 모범이 되는 구국 활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한국의 경우, <락화암가>는 적군에 항복하지 않고 백마강 강물에 몸을 던진 백제의 삼천궁녀를 노래한 것이며, <축석류경개>는 임진왜란 때의 진주 의기 논개를, <련광명경개>는 평양의 명기 계월향을 노래했다.

현월(弦月)은 압산(山)에 반(半)만 놓하고  
강류(江流)는 적적(寂寂)하고 희미(晞微)하도다  
락화암(落花岩)은 의구(依舊)히 서서 잇건만  
절의(節義) 있는 궁녀(宮女)는 어대로 갔나

- <락화암가> 1절

기백년(幾百年)에 넷 갖춰는 멸(滅)하지 안코  
만고불멸(萬古不滅) 그 갖춰가 영원(永遠)하도다  
론개(論介)의 넷 충의(忠義)는 의기사(義氣祀) 안에  
불멸(不滅)하는 의렬(義烈)이 살아잇도다

- <축석류경개> 1절

사천년(四千年)의 넷 강산(江山)은 불변(不變)하였고  
계월향(桂月香)의 의절(義節)은 영원(永遠)하도다  
구월국화(九月菊花) 삼월(三月) 꽃은 그의 절의(節義)를  
밤낮 업시 위로(慰勞)하야 방국하노나

- <련광명경개> 2절

악곡의 제목과 위의 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창가들은 조선의 풍광을 노래하는 가운데 여성 인물들을 떠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개(景概)는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창가 가사는 ‘열전’보다는 ‘기행문’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그 인상을 전제하고 있다.<sup>119)</sup> 조선의 풍광을 바라봄으로써 그곳에 새겨진 조선 여성을 환기하는 방식은, 풍광이 갖는 고유함을 노래함으로써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을 전유한 것이다. 즉 조선 여성을 노래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여성은 민족성을 구현하는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또 한편 이들은 궁녀이거나 기녀로서 일반적인 여성이 아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개와 계화월은 국가와 지아비에 대한 정절을 지킨 인물이지만 기생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의 모범이 되기 어려운 인물이다. 그러나 기생이라는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그들의 정절 이데올로기와, 나라를 위한 충렬과 남성 못지않은 결연한 의지와 행동은 새로운 여성성을 제시하는 여성 교육 교재에 이름을 올리게 한 주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생의 정체성을 근대 여성의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었기에, 창가집의 저자는 그들의 행적을 직접 치하하기보다는 조선의 경개를 경유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국 여성과 관련하여, <릉모가>는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인 왕릉의 어머니를<sup>120)</sup>, <서모가>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서원직(서서)의 어머니를<sup>121)</sup> 노래

119) 장지연의 『녀자독본』 상권 ‘잡편’의 53과와 54과에는 각각 “의기 논개”와 “계화월”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절개 있는 기생으로서 일본 장수를 안고 떨어져 죽은 논개와, 일본 장수를 죽이는 것을 돕고 자결한 계화월, 즉 계월향의 행적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120) 중국 한나라를 건국한 초대 황제인 유방과 패권 다툼을 했던 항우는, 한나라 개국공신이었던 왕릉을 자시 사람으로 취하고자 하여 그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두었으나, 왕릉의 어머니는 유방을 끝까지 섬기라며 아들이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갈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1) 서원직(서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시대 위나라 인물로, 촉한의 초대 황제인 유비의 참모이기도 했으며, 당시 위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조조와 수 차례 싸워 이겼다. 그러던 중 서원직의 어머니가 조조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했다.

칼을 물고 넘어지는  
왕릉(王陵)이에 어머니여  
대재(大哉)로다 그의 현심(賢心)  
후세모범(後世模範) 대현모(大賢母)라

- 〈릉모가〉 7절

현모(賢母)의— 자애지심(慈愛之心)  
학문(學問)의 뜻 가라치니  
어진 교육(教育) 그 장래(將來)가  
만세불멸(萬歲不滅) 대모사(大謀師)라

- 〈서모가〉 2절

저작자는 중국 여성을 노래할 때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지했다고 인식한 어머니상을 제시하였고, 특히 아들의 가르침을 위해 스스로 자결한 어머니들을 ‘현모’라고 칭송하며 따라야 할 모범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그들이 더욱 칭송받는 이유는 나라를 구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것은 간접적으로 구국 활동에 힘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 제시된 서양 여성의 경우, 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여성상, 그리하여 직접적인 사회참여와 구국 활동에 기여한 여성을 꼽으며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있다. <라란부인가>는 국내에 『라란부인전』(1907, 역자미상)을 통해 소개된 프랑스의 잔 마리 롤랑(Jeanne-Marie Roland, 1754~1793)을 노래한 것이며, 그녀는 프랑스혁명 때 지롱드파에서 활동한 여성 혁명가로 알려져 있다. <썬썩크>는 프랑스와 영국 간 백년전쟁에서 활약한 프랑스의 구국 영웅 잔 다르크(Jeanne d'Arc, 1412~1431)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지연 번역의 『애국부인전』(광학서포, 1907)에서 ‘역안’의 이름으로 먼저 알려졌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혁

---

조조에게 투항하고 유비를 떠났다. 이후 아들은 만난 서원직의 어머니는 어진 군주를 버리고 왔음을 호되게 질책하고 한탄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성 여성 인물로 선정되었다.<sup>122)</sup>

불란서(佛蘭西) 운명(運命)은 일노 새로워  
완전(完全)한 자유(自由)로 뜻이 되었고  
진취(進就)의 성력(誠力)이 터를 세워서  
영원(永遠)한 기지(氣志)의 업(業)을 일웠네  
- <라란부인가> 5절

철석(鍊石)인 마음과 애국렬성(愛國熱性)은  
구중궁궐(九重宮闕) 깊은 곳에 사모치였네  
비웃는 군졸(軍卒)과 제장능욕(諸將凌辱)도  
조금도 구애(拘碍) 업시 충렬(忠烈) 뿐이라  
- <싼삭크 (其二)> 5절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롤랑 부인과 잔 다르크를 위한 창가에는 이전까지 여성을 노래함에 있어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유”, “진취”, 그리고 “애국렬성”, “제장능욕” 등의 표현이 가득하다. 이는 조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국가 영웅으로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여성의 구국 의식을 독려하며 청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불태우는 자극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여성의 모습이 서양 여성을 통해서만 언급되었던 것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정치적 행위가 서양 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조선 여성에게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상적 모범상으로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저작자는 가사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나라별로 현격한 차이를 두었는데, 한국 여성은 기생, 중국 여성은 현모, 서양 여성은 구국 영웅으로 범주화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설정함으로써 한국, 중국, 서양 사이에 암묵적인 위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롤랑 부인과 잔 다르크 모두 장지연의 『녀자독본』 하권에서, 각각 ‘라란 부인’과 ‘여안’으로 소개된 바 있다.

## 5. 나가는 글

청년이여, 이때가 분기할 때로다. 청년이 아니면 이 부패막심한 사회를 타파할 자 누구며, 청년이 아니면 장차 이상적 신조선을 건설할 자 누구냐.<sup>123)</sup>

‘조선유학생학우회’가 발행한 『학지광』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10년대 제일유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은 식민상황의 조선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청년’은 개인이나 사회, 민족 차원의 ‘개조’를 통해 문명 세계를 주도해 나아갈 새로운 한 축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다. 3·1운동 이후 수많은 청년단체가 조직되고 청년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20년대 ‘청년 담론’은 더욱 본격화되었고, 개인의 자각이나 사회도덕 함양 등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적 책임과 자의식, 도덕적 실천 의지 등을 가르치고자 했던 청년교육도 강조되었다. 한편 청년여자에게도 이 같은 청년 의식이 동일하게 요구되었을까? 청년여자에게도 동일한 청년의 이상과 목표, 활동 등이 적용되었을까? 청년여자에게도 개조의 행위 주체로서 청년의 본분이 요구되었을까? ‘청년’ 범주에 마련된 여성의 영역은 무엇이었을까?

1920년에 『신여자』 창간호의 편집고문인 양백화(男)는 “현대의 남자는 어떠한 여자를 요구하는가”라는 논설에서,

적어도 중학 정도의 여학교를 졸업한 여자로서 보통 사교에 서투르지 아니하며 또 요사이 언문과 한문 섞인 신문 한 장 보아 소설과 삼면 기사 이외의 내의 중요사건에 대하여 관찰과 비평적 이해력이 있고 서간문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의 말하는 대로 언문과 한문 섞인 원고 한 장 받아 쓸 만한 여자.<sup>124)</sup>

123) 신석우, “귀로에 임하여: 청년의 무대와 조선,” 『학지광』 6 학지광발행소 (1915), 24.

124)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118-119.

라고 논하며 당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여성은 중등 정도의 학교 교육을 받은 여자라고 언급했다. 이는 ‘배운 여성’을 요구하면서도 여성의 향학열이나 지적 능력의 함양 등에는 무심한 채 철저히 남성 입장에서 여성 교육의 적절 수준을 제한하였다. 더욱이 여성 교육의 목표를 여성의 자의식 성장이나 개인의 자각 등을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교적인 능력과 신문 기사나 소설을 읽고 논할 수 있는 정도의 교양, 그리고 남편의 원고를 대신 받아쓸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 등에 두고 있다. 이는 현대 남성이 요구하는 여성상이라 제목을 쓰고 있지만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서로 의사가 통하는 정도에서 남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화된 여성상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학지광』 글에서 청년에게 사회 타파와 신조선 건설을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당시의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었던 사회적 규범과 역할의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1920년대에 청년 담론의 활발한 전개로 『자각론』과 『개조론』(1920, 1921), 『이십세기청년독본』(1922), 『조선의 현재와 장래』(1923), 『현대청년수양독본』 등 (남성) 청년을 대상의 계몽교재가 여러 권 출판되었지만 청년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당시 신문이나 잡지를 중심으로 여자교육을 강조하거나 혹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여성들의 활동상에 대해 비판하는 등 여자 담론 역시 뜨거웠으나 같은 시기 청년여자를 위한 교육 교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당시 사회가 여학생들의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초등여학독본』(1908), 『녀자독본』(1908), 『부유독습』(1908), 『녀자소학수신서』(1909) 등 이전에 제작되었던 소학 수준의 여성 계몽교재에만 머무른 채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청년여자를 위한 교육 교재로서 그 의미가 부각 된다.

모범이 되는 여성상을 제시하고 근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1920년대 청년 담론의 주된 사고방식인 ‘개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쳐서 다시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

‘개조’ 개념은 대중의 의식을 깨우쳐 밝히고자 하는 계몽의식과 일맥상통하는데, 남성 지식인의 관점에서 주도된 창가집은 개조의 대상을 ‘여성’으로 정하고, 여성 개조를 위해 제시했던 다양한 내용은 당시 사회 문화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여성관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가 실제 교육용 교재로서 어느 정도 유포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유효한 쓰임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저작자 정경운은 교육자나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보다는 출판업에 종사하며 당시의 세태를 발 빠르게 읽어내고 근대 지식 보급에 힘쓰고자 했던 지식인으로서, 이 한 권의 창가집에 1920년대 초 여성관과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다양한 내용을 집약시켜놓았다.

창가는 음악 자체보다는 ‘가창’과 같은 음악 활동이나 가사 내용 전달에 더 비중을 두는 장르로, 단조로운 음악과 반복되는 리듬 등은 창가가 갖는 규범화된 성격을 잘 드러내고, 개인의 심성이나 사적 감정을 노래하기보다는 공동체의 통제된 감정이나 사회질서, 혹은 교훈적인 것을 노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가창 활동을 통해 공동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행동 의지를 촉진하는 음악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의 악곡들은 평이하지 않은 선율로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단조로운 선율에 비해 과도하게 비중이 큰 가사는 이 창가집이 과연 가창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오히려 가창보다는 음송 등을 통해 가사가 갖는 내용 전달에 더욱 집중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1920년대 초 청년운동 및 청년교육이 활발히 전개되던 때에 특별히 여자 청년을 위한 ‘독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창가집이 ‘음악 독본’으로서 노래 되거나 혹은 읽히길 기대했을 것이다.

근대 지식인의 사교가 창가라는 음악 장르로 전해지는 과정은 여성을 사회에 결속시키려는 남성 지식인의 노력이 근대 시기 여성 담론 형성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청년여자/신여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불러내어 문화생활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을 새로운 시대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보여주며, 창가를 통해 사회의 관습과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

하는 방식, 성 규범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방식 등을 보여준다. 특히 창가를 통해 성역할을 규정하고 정당화하며 내면화시키는 것은 창가가 여성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전통과 근대를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합의된 근대적 여성상을 주입하고(남녀동등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가족 관계 내의 ‘현모양처’라는 제한적 여성상만을 이상화한다), 청년 여자/신여자가 경계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열녀효부’와 같은 유교 전통의 가치를 재생산하였다.

특히 가정을 사회의 기초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현모양처상’은 여성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어머니’ 혹은 ‘아내’ ‘주부’의 역할로 귀결시켜버렸고, 자기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자아를 성찰하기보다는 관계 지향적 범주 안에서 정해진 역할에 성실할 것을 강요받았다. 또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주장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는 가운데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열녀효부’와 같은 유교 전통의 여성 정체성을 재생산하였다. 삼강오륜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치를 계승했다. 이렇듯 근대 시기에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하는 상황은 특히 여성문제에 있어서 보다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는 대개 ‘가족’ 안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에서는 전통과 근대를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통과 근대를 대립적 관계로 비교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옛것을 버려야 할 것, 폐풍의 구습으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화하며, 동시에 근대, 문명, 계몽 등을 향해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여자/신여자로 표상된 근대 여자는 사회로부터 인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편 창가집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통과 단절하고 근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새로운 근대적 ‘현모양처’와 남겨진 전통적

‘열녀효부’가 공존하듯이, 근대와 전근대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반된 이념과 가치가 시대적 상황 안에서 함께 전개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 안에서 전통과 근대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결국 남성 중심의 지식체계 안에서 합의된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근대화 경로를 통해 가부장적 여성관으로 다시 수렴된 것이다. ‘열녀효부’나 ‘현모양처’나 결국 가정 내의 여성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이나 근대나 여성을 자율적, 주체적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를 통해 규정하고 한정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근대의 옷을 입은 ‘현모양처’는 여성에게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은 가부장적 사고가 근대를 맞아 변용된 모습으로, 속박하고 순응시키려는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사회가 규정한 역할 안에 용해되어 버린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가부장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성 교육의 효과를 전망하고 ‘근대’를 도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와 질서 체계를 또다시 내면화시킨 것이다. ‘현모양처’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근대적 여성상은 근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표면적인 반응일 뿐 여성을 주체적 개인으로 인식하려는 가치관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는 여성 담론 형성의 주체가 된 남성 지식인이 근대적 여성상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규범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근대 시기의 새로운 경험이 여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주체로 존재하게 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여성은 근대에 가족이나 친족 외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집단으로 영역이 확장되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한 인격체로서 다른 개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주체적 개인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은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와 삶을 인정받기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며 또 다른 사회적 조건과 규범들 사이에 다시 종속될 것을 강요받았다.

### 참고문헌

- 강명관. 『열녀의 탄생』. 서울: 돌베개, 2009.
- 강미정. “청년 계몽과 수양론.” 『일제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출판, 2019, 45-46.
- 강미정. “일제강점기 문명 담론의 변용과 1920년대 청년독본류의 개조론.” 『한국어문교육』 54 (2023), 101-132.
- 강화석 (저) / 강영미 (역). 『부유독습』. 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2.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 김경애. “현모양처론에 대한 근대 남성지식인의 비판 담론.” 『아시아여성연구』 48/2 (2009), 97-124.
-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서울: 소명출판, 2019.
- 김명선. “고등여학교 가사과목 교과용도서의 주거지식(1908-19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7 (2010), 2648-2653.
- 김민재. “근대계몽기 여학생용 초등 수신서의 특징과 한계 연구.” 『초등도덕교육』 43 (2013), 29-60.
- 김수경. “개화기 여성 수신서에 나타난 근대와 전통의 교차.” 『한국문화연구』 20 (2011), 99-137.
-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서울: 소명출판, 2009.
- 김순전 외, 『제국의 식민지 수신』. 서울: 제이앤씨, 2008.
- 김연순. “개화기 여성교육에 내재된 유교적 여성관.” 『페미니즘연구』 10/2 (2010), 35-87.
- 김영철. 『한국 현대시 양식론』, 서울: 박이정, 2018.
-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서울: 소명출판, 2004.
-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 그리고 애국부인들.” 『반교어문연구』 35 (2013), 97-128.

-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용 교과서, 근대적 ‘여성’의 기원과 형성.” 『한국문예비평연구』 47 (2015), 191-219.
-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6.
- \_\_\_\_\_. “1920年代初 抗日婦女團體 指導層 形成과 思想.” 『역사학보』 69 (1976), 137-168.
- 박철하. 『청년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편. 『근대 한국학 교과서 해제』. 서울: 제이앤씨, 2022.
- 송숙정.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에 관한 고찰.” 『비교일본학』 54 (2022), 241-263.
- 신석우. “귀로에 임하여: 청년의 무대와 조선.” 『하지광』 6 (1915), 24.
-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서울: 푸른사상, 2006.
- 이기훈. 『근대로의 전환』. 서울: 지식의 날개, 2018.
- 임미정. “20세기 초 여훈서의 존재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2009), 337-360.
- 임상석. “근대계몽기 가정학의 번역과 수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151-171.
- 장정윤. “1920년대 한국 근대음악 문화 지형그리기: 음악출판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 장미경. “<수신서>로 본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여성’ 교육.” 『일본어문학』 41 (2009), 377-396.
- 장지연 (편) / 문혜윤 (역). 『여자독본』. 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2.
- 전미경.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2/3 (2004), 75-93.
- 정경숙. “대한제국기 여자교육회의 조직과 구성원 연구.” 『정신문화연구』 34 (1988), 157-183.
- 정금선. “1920년대 조선인 지식인과 여학생의 여성 중등교육 인식.” 『청람사학』

29 (2019), 9-45.

- 정상봉.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4.
- 조경원. “대한제국 말 여학생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교육론의 특성과 한계: 『여자독본』, 『초등여학독본』, 『녀자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0 (1999), 163-187.
- 조운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 \_\_\_\_\_. “남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성의 노래: 백우용의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를 중심으로.” 『음악학』 28 (2015), 55-86.
- 최기영. 『애국계몽운동Ⅱ-문화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최정희. “근대 가정학의 도입과정과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84 (2023), 109-139.
- 한국교육개발연구소. 『한국근대학교교육100년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한국국학진흥원 편. 『자산 안확 저작 자료집 자각론·개조론』. 안동: 성심, 2003.
- 허재영.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시문논집』 68 (2016), 423-448.
- \_\_\_\_\_. 『일제 강점기 계몽운동의 실제』. 서울: 경진출판, 2019.
- 허재영 외 (역). 『근대수신교과서 1』. 서울: 소명출판, 2011.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담론』. 서울: 혜안, 2009.
- “상가승무노인곡.” <https://ncms.nculture.org/ceremonial/story/1597>. 검색일: 2024. 9. 30.
- “소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99> 62. 검색일: 2024. 9. 1.

“女子界喜消息: 女子教育會總裁 李鈺卿氏가 內部에 請願하되 本會에서 女子雜誌를 發刊하깃기 請願하니 特爲認許하라 하얏다더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6465>. 검색일: 2024. 9.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사이버 전시실.” <https://cms.ewha.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5614413&siteId=archives&dum=dum&boardId=5642956&page=2&command=view&boardSeq=5930409&year=2025&month=1&startDate=&endDate>. 검색일: 2024. 10. 1.

“이화음악데이터베이스.” <http://emusicdb.info/>. 검색일: 2024. 9. 30.

“한국 근대 대중가요 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12>. 검색일: 2024. 9. 30.

Abstract

The Meanings of the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1921) as an Educational Material for Women

Jeongsook Park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1921)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female identity by conceptualizing music as a form of women's education during the Modern period. *Changga*, recognized as either a civilized or enlightened sound, serves as a reservoir that enables us to speculate on and comprehend Korean modernity. In this context, *Changga* is a musical genre with practical purpose to articulate aspirations for modern society and reinforce the thoughts and norms of the new era. Following the 3·1 Movement in the 1920s, there was not only the intensified fervor for education, but also an increased discourses among youths regarding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leaders, as well as among women concerning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female education, as reflect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Despite the scarcity of recourses for female education, the publication of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reflects its role as educational materials that offer specific action plans for young women/new woman. Granting women with a sense of belonging in modern society.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separated tradition from modernity and stratified them with hierarchy through the form of song. It constructs a socially consensual image of modern women, idealizing the roles of the wise mother and the good wife within the family, while simultaneously emphasizing gender equality and

the importance of women's education. In other words,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consistently censored the behaviors to which young women/new women should be vigilant, while simultaneously perpetuating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including the notions of the virtuous woman and daughter. Not only does this song book but also educational materials for women, demonstrate how men possessing intellectual authority have historically overlooked the social values of women, utilizing their standards to establish a gendered order.

Key Words: *Changga for Young Women of Twentieth Century* (1921),  
modern educational material, woman discourse, wise mother  
and good wife, modernity, gendered order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5일	2024년 11월 1일~11월 30일	2024년 12월 1일

DOI 10.34303/mscol.2024.32.2.003